朝鮮日報 夕刊 二十日【金】 本紙夕刊十面

十三國强硬反對로 和協試案遂埋葬
二十日公開會議서制裁手段續行을表決
聯盟理事會에서決定

【쥬네브十九日發電通】聯盟理事會는 十九日午後五時四十五分非公開會議를開하고 十三國代表會議의 左의決議를受理하엿다

英佛和協案을 毁棄하고 十三國委員으로서 다시聯盟의 取할行動에對하야 硏究케할다음에 午後六時五分 루이스·기나스議長 司會下에 公開會議를開하고 巴里和協試案毁棄를 聽認한 十三國委員會의 決議를異議업시採擇하엿다

【쥬네브十九日發電通】十九日 聯盟理事會非公開會議에서 英國無任所相이든氏는 英佛和協試案은 死物로 되엿다는것을 承認하엿스나 라발佛首相은

和協試案은 아직 伊에交涉基礎가될 一縷의 希望이잇다

고 述하야 伊太利及 에디오피아로부터 同試案의 受諾又는 拒否의 正式回答이 來着할때까지 理事會를 休會할것을 提議하엿스나 十三國代表의 多數가 英佛和協試案에 對하야 어데까지 不贊成하는 態度를表明한結果 마츰내 同案을 埋葬하기로 意見이一致되여 二十日 正式으로 和協試案否決를 公表할 手續을取하엿다

【쥬네브十九日發電通】十九日午前 理事會秘密會議에서는 左의諸項을 決定하엿다

一、理事會公開會議는 英佛兩國에 伊에和協에 對한 進捗的努力에對하야 感謝決議를할것
一、伊太利를除한 十三理事國으로서 伊에紛爭의檢討를 目的으로하는 公開的委員會를 構成할것
一、制裁十八國委員會는 二十日에 會合하야 旣發한 對伊制裁諸手段續行의 件을 票決에 問할것

巴里和協試案은 侵略行動의承認
蘇代表포氏反對表明

【쥬네브十九日發聯合】聯盟理事會는 十九日午後五時半부터 事務局琉璃室에서 開會하고 議長기나스氏司會下에 巴里試案을 討議한結果 드듸여 同案을 放棄하기로 決定하고 左의 決議案을 採決하엿다

英佛兩國政府에서 起草한 和協試案은 全然暫定的示唆案에 不過하는바 聯盟理事會는 이러한 提案에對하야 公式所見을 表示할수업다 理事會는國家의情勢에 鑑하야 十三人委員會에 다시 伊에兩國의 紛爭에對하야 全般的檢討를加하기를 要請한다 委員會는 聯盟規約의 諸原則에 基하야愼重檢討를 加하기로함

席上으로서 蘇聯邦代表포촘킨大使는 特히巴里試案反對를表明하야 巴里試案은 聯盟規約을 無視한 侵略行動을 承認한데 不過한다 假令理事會의 表決에 附하엿다 할지라도 表決에는 參加하지안햇슬것이다 라고 述하엿다

巴里和協試案은 호어外相의獨斷
政府도過失잇다고하卿言明

【倫敦十九日發聯合】國璽尙書할리팍스卿은 十九日 午後 英國上院에서 巴里試案討議에 際하야 右와如한 重大事實을 暴露하엿다

호어外相은 身病靜養次로 瑞西에赴하는途中 巴里에 들러 라발首相과의間에 伊에兩國의 紛爭處理案을 協議決定하엿스나 英國政府는 何等訓令을與한事實이업다 더욱 政府는 巴里試案의 通告를 接受하엿슬時에는 이미 同試案의 詳細한 內容이 佛國各紙에 發表된後 이엿슴으로 政府는 全然處理에 窮하엿다 政府는 同試案

海軍軍縮會議와그前途
門戶開放主義는 海軍軍擴의動力 (卅一)
雲崗生

余는 以上으로서 米國門戶開放主義가 一八九九年、有名한헤이」宣言의 形式으로 提議되여 列國의 承認을 어든以後로 今日까지 三十六年동안에 米國의 國力發展을 따라서 그와 正比例하야 漸次로 그內容을 擴充해 오든經路를 略述햇다。要컨대 門戶開放主義는 特定地域에 잇서서의 各國民의 商工業上의 機會均等을 主張한것에 不過하다는 一點에잇서서는 同一이엇스나、이것은 單純히 機會均等主義라는 말로 包含되는것과는 크게 그內容을 달리하는바가 잇는것으로서

一、門戶開放主義는 米國의 極東政策을 一言으로 表現한 말이다。

二、門戶開放主義는 그처음에 잇서서는 中國에 잇는 列强의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內에서의 各國民의 商工業上의 機會均等을 主張하엿든것이나、그後、이 主義의 實施範圍를 크게 擴大하야 中國全領域(그中에는 列强의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도、包含함)으로 하기에 至하엿다。그러고、門戶開放主義는 그것이 米國의 極東政策 이라는 特徵을 가지는 同時에 他方、그 主義의 對象은 오직 中國이라는 一點도 記憶할 必要가 잇다。此를 反面으로 말하면 中國以外의 地域에 行하는것은 그것이 設使 各國民의 商工業上의 機會均等을 主張하는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 말하는 門戶開放主義內에는 包含되지 아니한다는말이다。

三、그러고 今日의 門戶開放主義에는 (註=九國條約成立以後를 意味함)中國의 主權尊重及 領土的行政的保全을 包含햇다。學者中에는 或 이것을 反對하는이가 잇스되、學說로는 그런理致가 설는지 모르나、事實에 잇서서 米國이 이內容을 包含햇다는데는 別數가 업는것이다。

四、그러고 또 今日의 門戶開放主義에는 (註=亦是、九國條約成立以後를 意味함) 中國에 잇서서의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의 新設은 此를 何國이 敢行하려고하든지 絕對로 이것을 反對한다는 意味가 包含된것이다。

그러니까、(一)中國全領域을 通하야서의 商工業上의 機會均等 (二)中國의 主權尊重及 領土保全、(三)中國에 잇서서의 列强의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의 新設反對等等 三大意義를 包含한것이 即、米國의 所謂、極東門戶開放主義인데、그러면 이 主義가 米國自體를 爲하야서는 무엇을 意味하며 또한 中國을 爲하야서는 무엇을 意味하며、또、日本을 爲해서는 어떠한意味를 가지며、또한 世界全體로 보아서는 무엇을 意味하느냐? 는 問題를 一考할 必要가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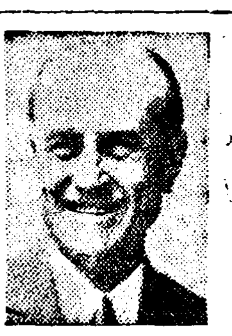
一、米國은 列强에 뒤떠러저서 東洋에 눈을 떳기때문에 勢力範圍又는 利益範圍의 名目으로 中國을 侵略치는 못햇스나、이主義의 確立으로 因하야 經濟的으로는 極東貿易에 對한 機會均等權을 確立하며、(二)政治的으로는 極東에 對한 發言權、干涉權을 獲得하며、(三)特히 海軍에 對해서는 日本에 對하야 高率을 가질수밧게 업다는 口實을 가지게되것이다。

二、此를 中國으로보면 이主義는 中國을 完全한 國家로 보지 안햇다。米國은 言必稱、中國의 主權尊重을 云謂하나 그 主權尊重을 말은 그實、中國의 主權을 尊重치 안니한 말이다。何故오 하면 제가 제主權을 尊重치 못하고、他國이 尊重해 주어서 비로소 尊重되는 나라는 完全한 獨立國家라고 할수가 업기때문이다。따라서 『헤이』 宣言은 中國에 對해서는 侮辱的 宣言이오、九國條約은 中國을 爲해서는 屈辱的條約이다。그러나、中國이 爾來三十六年間、列國의 共同管轄이나 又는 分割될뻔한 危機에 逢着햇스면서 今日까지 不完全하나마 保存되여 온데는 이主義의 恩澤도 잇슬것만은 事實인듯십다。

三、此를 日本의 立場으로 본다면 米國이 萬若、이主義에 依하야 그極東貿易에 對한 單純한 機會均等權만을 要求한다면 日米兩國間에 過한 衝突은 업슬것이나、여기다가 새로 여러가지 意味를 添加하야 政治外交上、極東에 對한 發言權과 干涉權을 가진다는데 對해서는、東洋의 安定勢力으로 自處하려는 日本으로서는 到底히 참을수업는일이다。故로 그所謂極東門戶開放主義에 政治的意味가 添加되기始作한 後부터 日米兩國은 對立關係에 서기 始作하야 그主義의 內容이 擴充됨을따라서 兩國間의對立은 漸漸、尖銳化해 가는것이다。그러고 米國이 極東門戶開放主義를 擁護한다는 口實로 海軍을 擴張하니까、日本은 이에 따라서 海軍을 整備할수밧게 업시 되는것이다。

四、또한 此를 世界全體로보면 첫재 世界의 植民地分割傾向을 阻止하며、둘재로 自由貿易主義를 擁護하는데 잇서서 過去三十餘年間은 相當한 貢獻을 햇슬것으로 볼것이다。何如間、이러케 보아오면 米國의 極東門戶開放主義가 世界的 海軍軍擴競爭과 얼마나한 密接關係가 잇는가를 알수가 잇슬 것이다。(繼續)

『내가取한政策은 可能한唯一의길』
俯仰天地하야붓그러움업다
호어氏辭職決意演說



【倫敦十九日發電通】英國下院에서 和協試案에 對한 歷史的討議는 十日午後三時四十五分 호어外相의 演說로 開始되엿다 英國下院은 當時外相에 對하야 恒常 寬大한 態度로서 그說明을 聽取하여왓스나 今回에 余는 어떤事情으로 政策發表를 遲延하게되엿슴으로 그때문에 誤解와 批難이 增大하게 되여 바야호로 余는 聯盟의 困難한 立場과 同一한立場에 處하게되엿다 吾人은 바야호로 戰爭이나 平和나라는 岐路에 서게된 重大問題에 直面하여잇다 淸聞에잇서 余는 일즉聯盟國으로 가장 親密한 友邦이든 英國과 伊太利의 戰爭을 廻避하기爲하야 모든 努力을 다하엿스나 余가 外相에 就任한以來 每日戰爭은 繼續되고 事態는 逐日險惡의 一途를 걸어 惡影響을 全世界에 與하고 破局은 中國、埃及、歐洲에서 連하야 이러나 今次의 和協試案을 作成함에當하야 라발氏와 余도 同試案中의 諸項을못하리라고는 생각지 안햇스나 此等諸項은 平和評判을 開始할 基礎가되리라고 思惟하엿다 我等은 바야호로 危險한 戰爭의 第一頁에 踏入하려한다 英國政府는 今次의 歐洲國際情勢의 緊迫에鑑하야 極度로 愼重한 態度를 取하야 一隻의軍艦 一門의大砲 一人의兵士라도 他의聯盟國內를 通過하야 此를 出動하고잇지안다 伊太利政府는 聯盟이 對伊石油斷交를 決議하면 이것으로서 伊太利에對한 敵對行爲라고 看做하는同明的言辭를 弄하고잇다 英國政府가 伊에紛爭處理에 當하야 極度로 愼重한 態度를 取하는 重要理由의 하나는 聯盟의 如斯한 對伊制裁賦課에 對하야 伊太利政府가 斷乎武力抵抗을 試驗할 危險이잇는것을 알기때문이다 元來英國政府는 伊太利政府의 如斯한 同明을 威壓으로는 아니다 英國이 威壓하는것은 오직 歐洲에 一大動亂을 招來할 危機를 轉換케함이다 余는 誠心誠意로 余가 取한 政策에 關하야 俯仰天地에 恥할바업다는것을 公言하야 마지안는다 余가 取한 政策은 現在와 如한 狀態에잇서、可能한 唯一의것이라고 信한다 一國의 外相이 그政策을 遂行함에 當하야 全國民의 支持를 엇는것이 絕對必要하다 余는 今日에 이것을 어들수 업게되여 辭職을 決意하게되엿다 余의眞意를 諒察하기를바란다 (喝采裡 호어氏)

巴里和協試案을 痛烈히論難攻擊
勞働黨首領自身이政府不信任案提出

【倫敦十九日發聯合】호어前外相의演說이 終了되자 勞働黨首領 아트리少佐는 內閣不信任案을提出하야 聯盟의存在를 無視하고 侵略國의行動을 確認한 巴里試案을 痛烈히 非難하여曰

巴里試案은 에디오피아帝國版圖의半을 侵略國에 提供하는要案이다 弱者를 犧牲하야 侵略國에 巨大한讓步를 敢行하는것은 英國國民의 政治的觀念에 背馳되고 集團的安全保障及國際聯盟의原則을 破壞하는行動이라고할것이다 過般總選擧에際하야 政府는 聯盟擁護를提唱하야 聯盟의原則을支持하엿다 그런대 今回와如한 試案에 同意한것은 選擧民을 따른 背信行爲이다 以上의見地에서 玆에不信任案을 提出한다 그리고 호어外相의辭職이 眞正으로 正當하다고하면 現內閣은 當然總辭職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以上 아트리少佐의痛烈한 論難에對하야 볼드윈首相自身이 正面에 나서 巴里試案成立의經緯를 說明하야曰

호어外相의 辭職에對하야 一言하면 호어外相은 去八日日曜日에 라발首相과 會見하고 和協試案을 決定하얏다 政府가 報告로 接하엿슬時는 試案은 이미成立된 後이엿다 試案의內容을一見하고 자못不滿하엿다는것을 玆에證言한다 그러나 政府當局은 歐洲의危機를 重大視하지못하고 巴里試案을 一應承認한것은 重大過失이라고

案의內容이 지나친것은 덮을수업다 各閣僚가 모다 不滿하나 要컨댄 事態를 이러케 만든것은 主로 余의責任이라는것을 痛感하는바이다 勿論政府는 和協試案에 關한裁斷을 聯盟理事會에 一任하엿스나 試案은 完全히 埋葬되고 政府는 試案의 復活을 圖하려는意圖는 全然업다 英國政府의外交政策은 終始一貫하야 國際聯盟을 基調로한 集團的安全保障制를 堅持하는데는 조곰도 變化가업다 그러나 聯盟各國이 集團的機構擁護에 應分의役割을 다하지안코 英國政府가 獨力集團的機構擁護의任務를 負擔하지안흐면 안되라고하면 果然如何하게되겟는가 萬若聯盟各國政府가 協力一致하야 制裁案의 實行에 當하면 制裁案은 完全히 效果를 發揮할것이다 그러나 天下의 情勢로는 聯盟各國政府의 全面的協力을 期待할수는 업다 聯盟制裁案은 將來의 威力을 發揮하는데는 疑心을 갖지안흐나 制裁案이 卽時效力되지안는限 事實上 何等實際的效力이업다 聯盟擁護의目的을 主唱할時期는 이미지나고 聯盟各國政府는 바야흐로 現實에 直面하지안흐면 안될것이다

英佛和協案失敗를 볼드윈首相率直히認定

【倫敦十九日發電通】十九日英下院에서 英佛和協試案에 關한外交討議는 호어外相의 辭職에뒤이여 緊張裡에 開始되엿다 볼드윈首相은 左와如히 述하야 率直히 英佛和協案의 失敗를 承認하고 英國은 終始平和維持에 關한限 聯盟文持를 遵守한다는 旨를 闡明하엿다

英國案은 明確히 또完全히 死滅되엿다 政府로서는 今後라도 同案의 復活을 企圖할意思는 업다 余는 英佛案이 與한 結果의 調整에는 相當한 時日을要할것을 認定하고 此를遺憾으로녁이는바이다 호어外相은 드듸여 英佛案에對한 責任을 負하고 辭職하엿스나 同外相의 辭職은 아모래도 政府에 對해서는 큰損失이며 遺憾이다 事實 英佛案에對하야 政府閣僚는 모다 同協定이成立될 때까지 何等 此를 關知하지못하고 비로소 同案의 內容을 알게되매 너무나 政府의意向과 懸隔되여잇는것을 認定하엿다 余뿐만아니라 各閣僚는 모다 平和維持에關한限 政府의政策은 恒常聯盟을 基礎로하는旨의 誓約을 與한데 對하야 終始 이에充實하기를 期하고 이誓約으로부터 逸脫할 意圖는全然업다 英國은 恒常聯盟으로 하여곰 眞正으로强力한 平和機關으로 그本領을 發揮케하기爲하야 努力하고잇다는것을明言하는同時에 英國으로서는 假令聯盟主義堅持를爲하야 脅威를밧고 孤立에陷할憂慮가잇다고해도 斷然히 이에 屈하지안코 當然히 할것을 斷乎히行할다름이다 余는 全國民에 對하야 한번政府에 集團的安全維持를 委任하기를 切望하는바이다

永野全權、英國案을 全面的으로反對
畢竟比率主義의繼續에不過

【倫敦十九日發電通特派員發】軍縮會議第一委員會第七回會議는十九日午前十時三十五分(日本時間午後七時三十五分)開會하고 永野全權은

英國案은 畢竟 比率主義의 繼續을 意味하는데 不外하는바 이미 闡明한 日本의 軍縮方針과 根本的으로 背馳하는故로 此種案에는 斷然贊成할수업다

하야 全面的으로 反對를 闡明한後 午後一時(日本時間午後十時)散會하엿다 次回는 二十日午後三時부터再開하고 다시 英國案의 審議를繼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크리스마스休會는 明年一月六日까지 延長하기로 決定하엿다

佛首相도辭職乎
和協試案의責任지고

【巴里十九日發聯合】라발首相은 聯盟理事會終了와 함께 急遽巴里에 歸還하야 和協試案에關한 責任을 負하고 르브랑大統領에게 辭表를 提出하리라고 觀測되다 但 大統領은 辭表를 受理하지안코 國際政局의 重大性과 財政上危機를 說明하야 慰留 誠意에 努力하리라고 豫想되는대 結局 來週下院에서 豫算通過後 信任投票에 失敗하야 總辭職할수밧게 업스리라는 觀測이有力하다

八面錄

◇和協案自體의 不和協으로 伊에戰爭은 放任狀態로 越年할 모양。
◇石油制裁도 無期로 延期되얏스니、聯盟의活動도 中止狀態로 볼수밧게업다。
◇今年度 就學兒童은 全數의二割五分에 不過。
◇넘어지 七割五分은 文盲狀態로 살어가야될八字라하면 文明世界가 暗黑하일。
◇英外相의 辭職으로 佛首相까지 辭職할危險이잇다고。
◇一言으로 評하면、愈出愈妙한 世相이라할가。

今日夕刊八面

上海의學生運動 事態益重大化!
漸次排日運動으로轉換

【上海二十日發聯合】當地의 華北自治反對運動은 大學敎授들이 先頭에서 指揮하야 全市의 學生은 勿論 各種同業公會도 이에 呼應하야 連日宣言을 發表하는等 事態는 더욱重大化하고잇는데 十九日午後二時復旦大學生約三百은 隊伍를 지어 데모를行하고 「國民政府擁護」「華北自治反對」「打倒日本帝國主義」等의 口號를 絕叫하면서 市政府에 殺到하야 代表數名은 吳鐵城市長에게 面會를 强要하고 吳市長에對하야 「北平에서逮捕된 學生의釋放과負傷한 學生에게 慰藉料支拂」「學生의 愛國運動을 認定하라」「學生運動을 壓迫한 官憲을 處罰하라」는 等을請願한外 「國民政府는 速히 聲明을 發하야 抗日討逆을斷行하라」고 請願하얏는데 吳市長은 學生은秩序를守하고 本分에 도라가 學業에나 아가라고하야 물러가게하엿스나 空氣는 더욱惡化하고 잇다

十二月二十日부터 晝夜二回興行午後一時七時始映 入場料 階上大人50小人30 階下大人30小人40
青春座第二週陣容
劇界의 新鋭青春座一行의 大公演!
時代劇 申鄕牛作 사랑은눈물보다 쓰리다
主演 黃澈、徐月影、金蓮實、車紅女
九月山人作 寸劇 네것내것
李雲芳作 人情劇 衛衛國 一幕
主演 金鮮英、朴寶行 黃澈
九月山人作 家庭爭議實況放送 二景
主演 沈影 金仙草
第三週重要內容
崔獨鵑作 悲劇 死의饗宴 二幕
李雲芳作 社會劇 물방아 二幕
九月山人作 喜劇 八字업는배 二景
暖房裝置完備
竹添町一ㅈ 電光3三三
東洋劇場

十二月廿一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會社超特作品鑑賞週間
每日三回興行午前十一時半午後三時半同七時半大衆料金椅子席02階上席15階下席10
RKO社超特作金發聲日本版
아벨간스原作監督出演
世界의終斷
고렛드다루바이氏 푸란·드·그렌드孃 主演
보아라世界에滅亡人類의全滅!慧星이地球을向하야彈丸가티突進하야온다그리하야全世界는瞬間에散粉碎되는것이다그러면人類는엇지되엿슬가??
新興키네마社超特作品
東坊城恭長監督
現代劇 春告鳥
森靜子 月田一郎主演
入江たか子特別出演
와나푸라샤ー스社特作品
成金爆笑記
크라이드쿡크氏 루이스후안제다孃主演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一七五五
第一劇場

本年掉尾의超特別大興行!
十二月二十日부터大封切
奇怪의極致!!恐怖科學戰은展開한다
유社超特作全發聲連續大雄篇
殺人光線 全二四卷中 前半上映
루이스후이드란드氏 監督
巨星은스로스팅분스氏主演
아ー다ー인스孃 助演
人間을넘게드리여形容도업시만드는透明光線과奇奇怪怪의殺人光線으로짜내는陰險!恐怖!戰慄의三重奏로人間의心琴을선이고잇다보라!科學이나은前世紀未聞의一大壓倒的警鐘篇을……?
太秦發聲製作所全發聲
三枝源治郞監督作品!
日本人なればこそ
諸口十九氏、櫻井京子主演
大阪道頓堀퍄바레ー赤玉舞踊團의總出演의一大豪華版
坊やのはいきんぐ
M、G、M、少年少女班의出演
東日大每國際뉴ー스特輯號
喞火伊太利와 山上의에치오피아 全卷
貫鐵洞 電光九五三
優美館

十二月二十日낫부터晝夜二回映畵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續映
七時부터上映
大衆料金階上二十錢階下十錢均一
十錢破額提供週間
豪壯華麗의名畵大陣!!
하롤드、로이도、푸로닥숀超快傑作全發聲
로이드의大勝利
監督=쌈、테일라
主演=하롤드、로이드
喜活冒險大衆世界的로이드는市長의大勝利한痛快豪壯映畵
松竹키네마社不朽의大作品全發聲
日本女性의歌
主演=栗島すみ子
監督=池田義信
立案=城戶四郞
豪華無比하고絢爛活潑한特秀映畵
原作脚色監督=李圭煥
=封切豫告=
朝鮮歷史가자랑하는萬古烈女春香傳
그후의李道令
=乞期待!!=
仁寺洞 電光二三八一
朝鮮劇場

"產業勞組"卅四名中 半數는執行猶豫

最高로權榮台鄭泰植은五年

今日京城法院서判決

속칭 서대문서사건(西大門署事件)으로 알리어진 리재유(李載裕)등이 관계된 사업별 적색로동조합(産業別赤勞組)사건의 권영태(權榮台)정태식(鄭泰植)등 삼십네명의 치안유지법위반、출판법위반의 공판은 지난 십일월 삼십일 구형이 끗난후 이래 준비중에잇다가 이십일 오전열시 사십오분 예정한대로 경성지방법원대법정에서 언도공판이 개정되엇다 당일 피고삼십네명은 형무소자동차에 실리어 동열시경에 출정하엿고 일은새벽부터 친족등 방청인도 다수히 참집하엿다 그리하야 열시 사십오분 산하(山下)재판장과 흑뢰(黑瀨)검사가 입정착석하고 즉시피고일동을 기립시킨후 재판장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대하야 첫재형의 적용문제를 설명하고 계속하야 피고들의 범죄의 내용과 또 현재의 의식(意識)정도 즉 이후의 실천적 투쟁력의 유무를 참작하야 형을 결정하엿다 는둥을말한후 다음과가티 변홍대(卞洪大)한명이 구형보다 륙개월이 더한외에는 전부구형보다 다가볍게 언도를하야 최고는오년두명 이하사년한명 삼년 이년등에 그중 그반수인 십칠명은 집행유예를 선언한후 동열한시오분에 폐정하엿다

	言渡	求刑	執行猶豫	未決拘留
權榮台	五年	六年		百八十日
鄭泰植	五年	五年		同
李鉉相	四年	四年		同
安鍾瑞	三年半	四年		同
卞洪大	三年半	三年		同
安三遠	三年半	三年		同
朴鼎斗	二年半	二年半		同
南萬熙	二年半	二年半		同
徐升錫	二年	二年	(四年)	一百日
李明新	二年	二年	(四年)	同
李元奉	二年	二年		百八十日
許마리아	二年	二年		一百日
李順今	二年	二年		百八十日
安炳春	二年	二年		百八十日
鄭七星	二年	二年		百八十日
邊雨植	二年	二年		百八十日
任澤宰	二年	二年	(四年)	百日
金三龍	二年	二年		百八十日
李星出	二年	二年		百八十日
金熙星	一年半	二年		百八十日
崔慶玉	一年半	二年		百八十日
李丙驥	一年半	二年	(三年)	百日
金晉成	一年半	二年	(四年)	百日
韓六洪	一年半	一年半	(四年)	百日
金大容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安秉允	一年半	一年半	(四年)	百日
李景仙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李丙驥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崔小福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鄭龍山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李百萬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金元經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崔永昌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朴壽昌	一年半	一年半	(三年)	百日
沈承文	一年	一年半	(三年)	百日

(이상에 괄호안에 해수를쓴것은 집행유예의 년한이고 그외는 모다 체형)

全南北旱災救濟 國庫七十四萬圓

第二豫備金에서支出키로되여

不遠事業에着手豫定

전남북량도의 한발리재민구제와 복구공사비등의 구제계획에 대하야는 그간 총독부에서 제이예비금(第二豫備金)의 지출을 하게되야 그간 대장성(大藏省)과 협의중이든바 지난 십삼일 각의(閣議)에서 결정을 보앗든바 이십일에 다음과 가티 칙재(勅裁)를 바덧슴으로 량도에 국고보조액 칠십사만일천팔백삼십원을지출할터이라한다

	總額	內國庫補助
全北	[illegible]圓	[illegible]圓
全南	[illegible]圓	[illegible]圓

전긔와 가티 구제비의 총액은 일백이십사만 오천이백사원으로 그중 제이예비금으로 지출되는 국고보조액은 칠십사만 일천팔백삼십원 이라한다 그럼으로 이것을가지고종묘(種苗)의 급여와 부업의장려 괴설제언보(堤堰洑)의 개수 사방공사와도로개수등을 할터이라한다

偵察을主로하든 飛機로爆彈投下

警務課長이陸軍省에交涉하여

國境警備는積極化

결빙긔에잇서 국경경비의 방비진을 공고히하기위하야 경무국에서는 입속부터 긔관총을 비롯하야 수류탄(手榴彈)비행긔등을 배치하야 항상경비진의 강화를 도모하고잇섯는데 이번에는 다시비행긔는 정찰용으로쓰든것보다 이에다가 폭탄을 실코 무장단을 폭격하게하는일방 박격포(迫擊砲)도 배치하기로되여 이번에경무국 신패(新貝)경무과장이 동경에가서 륙군성 병긔국(兵器局)과 협의한결과 전긔의 폭탄과 박격포를 다수 불하(拂下)밧기로 되엿다 한다 이와가티 경무국에서는 이번에 적극적공격을하는 무긔를 국경에 배치하게 되여 재래의 방비제일주의로부터 적극적 토벌주의로 전환하게되엿다 따라서 금후에는 신의주(新義州)를 긔점으로 국경상륙수개소에 경찰용 비행장을 설치하고 수시로출동하야 폭탄을 무장단에게 던지는등 작년에는 정찰용 비행으로서도 실패하엿든 비긔는 금번에는 적극적으로활동을 식히게하는등 국경제일선의 경관의무장은 비상이 공고하여지는셈이라 한다

精神病科의研究로된 첫博士李重徹氏

世醫專講師의靑年學者

九州帝大에論文通過

평남 안주(安州)출생으로 지난 소화이년 시내남대문통 세부란스의학전문을 마치고 구주제대(九大)의 정신병과 교실에서연구를한후 다시 멀리 호주(濠洲)의『멜본』대학으로가서 그정신병과 교실에서 연구를 싸허가지고 도라온 세부란스의학전문학교 정신병과강사 리중철(李重徹)(三一)씨는 『마비성치보소뇌의 병리조직학적연구(痲痺性痴保小腦의 病理組織學的硏究)』라는 학위론문을 얼마전에 구주제대 의학부교수회에 제출하엿섯든데 십오일에 동대학교수회에 통과되엿다 정신병과연구로 학위를 어든분은 조선인의학자로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리박사)

仁川의府吏 詐欺하고潛跡

십구일 인천부청(仁川府廳)직원 추산문언(秋山文彦)(三一)이출근을 하지안코 돌연 행방을감추어버렷슴으로 인천서 에서는 이를 극력수사하는한편 경성시내 각서에 통첩을 내여 엄탐하는중인데 그는 지난칠월중에 시내 태평통(太平通)정목 향정시계점(向井時計店)에 이르러 월부로『크롬』회중시계 한개를 가저간 이후 구월중순에 전긔 시계점주인이 업는 틈을 타서 점원 홍승조(洪承祚)를속여 주인의 승락을어덧다고 십팔금반지 한개를 가저가고 또금월십팔일에도 역시 주인업는 틈을 타서 가튼점원에게 가튼구실로 금시계줄한개 칠십사원짜리를 취해가지고 갓다는데 그동안 주인이도라와 이일이탄로되긔색을 알고 그는그만 다라나고만것이라한다

複雜한市内百貨店에 消防手派遣警戒

萬一의危險을덜도록

경성소방서(京城消防署)에서는 년말의 화재『씨-즌』을 마지하야 각처에서 빈번이러나는 화재의참화를 예방하려고 대책을강구하고잇든중 이제 그구체안으로 관공서、백화점、흥업장등 군중이 모혀드러 혼잡한곳에특히 주력하야 각관공서등대건물에는 각금조사원을 보내여 방화설비를 조사하야 단속하고국장에는 야간소방수를 보내여경계시키고 더욱히 백화점에는이십일일부터 삼십일일까지 한명식의 소방수를 배치하야 만일의 경우를 념려하고 업중히경계할터이라는데 일반도 주의하야 년전에 화신(和信)의 실패가튼일이 업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運動競技

中等籠球의最高峯 第二回京平對抗戰

養正高普와崇仁商業軍이對峙

一月十七、八日平壤서

우리中等籠球界의 最高峰！京城平壤의 兩都市籠球聯盟戰 中學部의覇者들로서 雌雄을決하는第二回 京、平對抗戰은 養正高普와崇仁商業의 決戰은 本社平壤支局後援아래 一月十七、八兩日間 平壤 體育館에서 열리게되엿다 第一回에는 崇商과中東이 京城에서對戰하야 第一次戰에 五五對四八로中東이 第二次戰엔 三六對三四로 崇商이各各一勝하야 無勝負로 마친뒤이라 자못興味를 이끌고잇스며 崇商軍은 全日本中等籠球界를 征服한無敵軍이라면 養正軍은 崇商과함께 全日本大會에 臨하야 準決勝에 關東學院에게 惜敗하야 崇商과對戰할 機會를 엇지못하엿든터이라 兩軍의 對時는 벌서부터 非常한

普專籠球部 陣容을決定

人氣者 渡東하고잇다

來年一月四日부터 六日間東京神宮外苑『코-트』에서 열리는 全日本綜合籠球選手權大會에 出場와 아울러 世界籠球리그大會의 豫選을 兼하고잇는 普專籠球部에서는 今番 陣容을編成한後 連日猛練習을거듭하고잇는데 來二十九日午後三時特急으로 京城을떠나 同夜十時五十分에 釜山에서 校友비部와 同行될터인바 途中에 神戶의關西學院과 京都에서 京都帝大와對戰코저方今交涉中에 잇다하며戰地東京에는 늣저도 一月一日에 到着할터이며 宿所는 淸川靑年會館이라한다 ▲部長洪性夏 ▲監督林東?▲主將金致雲 ▲마네저李文鎬 ▲選手 申光浩 金善敎 崔海祖 金炯奭 辛在麟 宋在明 李文鎬 安台慶 金致雲 宋基宇 洪遇錫

新義州三務校 日光遠征

全日本中等氷上에

新義州三務學校氷上部에서는 來廿七、八、九의三日間 日光에서 열리는 全日本中等氷上大會에參戰하고저 昨十九日 新義州를떠나出征途中 今二十日午前十時 京城에下車하야 即時 本社를來訪하엿나 一行은 當日午後三時부터 淸凉里링크에서 最後練習을마치고 同午後十時五分 京城驛發 戰地日光에 直行할터이라는데 陣容은 다음과가트며 三務軍는 新義州代表의 名譽와함께 가장有望한 選手들로編成이다 ▲引率者劉川教諭 ▲主將成枝一(五百米) 金承燦(全種目)高順昌(同上)邊成榮(同上) (寫眞은 本社를來訪한三務學校氷上軍)

三千名不平에點火 大日鑛罷業決行

主謀吳尙根의長久한工作으로

今日送局된事件裏面

【鎭南浦】삼천여명의 직공이일시에 동맹파업을 단행하여 하로 사만여원의 생산고를 내이는제련소에도 거대한 손해를주엇고 직공측으로도 다수의희생자를 내이여 실로 로동쟁의사상중요한 한페-지를 점령한진남포일본광업제련소(日本鑛業製鍊所)동맹파업사건은 칠월이십삼일 오전여섯시에 발생하여 회사측과 직공측에서 십여일 동안이나서로 강경한태도로 대항하엿스나경찰의관합이 심하야 결국직공 대부분이 무조건취업을 하게되자경찰은 주모자로 인정되는 직공오십여명을 검속하고 이래만오개월 동안이나 엄중한 취조를하여오든중 지난이십일에야 취조의 일단락을 짓고 일건서류와가티

吳尙根 崔仁秀 白基順 金泰成 邊文山 孔昌武 任賢三 裵基兆 黃德植 金元根

등열명이 진남포검사국으로 구속송치되엿는데 그네들이 엇더한 동긔로 그러듯 동맹파업을 단행하게되엿스며 파업을 단행하기까지어떠한 내용공작이 잇섯는가 그내용을 알어보건대삼천여명직공을 총 지휘한 오상근은 본시공산주의 직개인물인윤상남(尹相男)의 지도를 바더 공산주의를 신봉하여 자긔의주의를 철저히 실현코저 긔회를 엿보고잇다가 제일착으로 금번 진남포 일본광업제련소의임시공금인부로 드러가 공장내각종로동조건을 조사하여본즉 매일 사만여원의 생산고를 내이고 삼천여명의 직공을 사용하는 대공장에 모든 설비가 불완전할뿐아니라 십여년이상 근속한 직공들의 로동임금이 칠팔십전에 불과하여 벌서 직공들사이에 의론이 분분하여잇섯다 오상근은 이점에 착안하고 이 긔회를 리용하여 동맹파업만 단행하면 단연 직공측이 승리하게될것이고 그러케되면 삼천여명 직공들은 자연히 자긔의 뒤를 따르게되며 주의의 철저히 선전도 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이월부터 동맹파업을 할계획을 세우고 본시부터 불평을 가지고잇든 직공백긔순、조인수등에 사람과 협력하여 제련소일반동태를 조사하기시작 하엿든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다수의 동지를 어든것이 량책이라고생각되여삼월에는 암암리에 직공상조회(職工相助會)란것을 조직하여 오십여명의 동지를 어더가지고 밤마다 비밀리에 집회를하여가며 착착동맹파업할 준비를하여오든터이다

(사진은 바른편우로부터 오상근、백긔순、조인수、김태성외인편우로부터 변문산、임현삼 황현식、배긔조、김원근)

相助會를組織後 職工全般에策動

마츰내罷業十餘日繼續햇스나

五十名의檢擧로敗北

그러는동안 진남포부두로동조합인부로 일수이 만주사변당시 반전(反戰)데이사건으로 집행유예를밧고 출옥하엿든 김태성(金泰成)을알게되여 가튼보조를취하게된후 오륙개월동안이나두고 매일밤마다 오십여명이 야외로집회하며 파업자금을 변통하는일방삼천여명 직공들에게동맹파업만단행하면 최후의리가 단연잇슬것을 충분히 리해케하며 일변폭력단(暴力團)을 조직하여 경관이제지할때에는 폭력행위로 탈환할준비까지한후 드듸여 칠월이십삼일 오전 여섯시삼십분 교대시간을 리용하여 일시에 동맹파업을단행하엿든것이다 그러나 동맹파업을 단행하야 경찰의경계는엄중하여 룡강등지의 응원까지어더 맛치전시와가티 파업단부경계하는일방 주모자를찻게되엿것다 그리하여 주모자들은 정면에나서지못하고 야외로 피신하여다니며 십여일동안 조종하엿스나 한사람 두사람검속을 당하게되고 회사의태도는 강경하여 십여일이 되도록 조금도양보지안코 칠구일까지 취업치안흐면 전부해고한다는 최후통첩이나리게 되얏다 그러자 총지휘자를 일케된 삼천여파업단은 갈길을 모르고 잇다가 결국무조건으로 이십일부터 전부취업하게 되엿든것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주모자로 인정되는자 오십명을 검속하여가지고 이래오개월동안이나 엄중한 취조를 한결과 전긔와가티 구속열명과 불구속으로 이십사명을 치안유지(治安維持)위반으로 송국하게되엿다는바 진남포경찰서에서 취급한사상사건이다

利子引下後의典當舖 衣類等典執拒絕

리익업다고취급안는곳이만허

細民層은小額金融에大打擊

지난 시월 일일부터 전당포리자가 개정되야 일반리용자들은 만흔 긔대를 가지고 잇섯는데 요사이 전당업자중에는 규측의불비한점을리용하야 비교적 리익이 박한 의류등속은 전당잡히려와도 잘안 보지도안코 그대로 쪼처버리어 세민층의 리용자를 곤난케하고잇서 항간의 비난이 자자하다

지난 십칠일 종로경찰서원이 도량형긔를 검사코저 부내 돈의동(敦義洞)보전당포에 갓섯슬때 마츰 어떤 저녀애가 옷보통이를 가지고 와서 전당을 잡으라고 하매 전당포주인은 보통이를 끌려 보지도 안코 옷은 잡지안는다고 그대로 쪼저버림으로 그의 부당함을 말햇더니 귀금속은 리가잇서도 의복등속은 리익이 업서 안잡는다고 대답한사실이잇서 소관종로경찰서에서는 곳그전당포주인을 불러다가 사실을조사한후식 당한처치를 하기로 되엿다한다

趙保安課長談

그런말은 처음 듯는말입니다 금액의 관계로 안잡는것은할수업는일이나 보지도안코 리익이안되니가 안잡는다는것은 영업자로서 영업할의사가 업는 사람인동시에 몹시배부른사람의일입니다 전당업자는 아모리싼것을잡어도 손해되는일은 업을것이니 그러한일이 만흔것가트면 곳조사하야 사실이나타나는대로 적당한 처치방법을 고려하겟습니다

賣家 京城鍾路六丁目一ノ二一 代地五十九坪八合 新築文化瓦家九間 問合 鍾路南大門一ノ二 電話本局(2)四八九六番

市內各學校의冬休期間

시내각학교의 동긔휴가는 다음과가티 결정되얏다

▲公立初等學校 自十二月廿六日 至一月十八日
▲公立商業學校 自十二月廿一日 至一月十四日
▲女子商業學校 自十二月廿一日 至一月十四日
▲商業專修學校 自十二月廿六日 至一月二十日
▲商業實修學校 自十二月十六日 至一月七日

天氣豫報

高氣壓은中國에서北滿洲에七七四미리를 表示하고 千島方面으로 빠지어잇다 朝鮮은低氣壓의傾斜가緩慢하고 中國上海의 西南에는 低氣壓이잇다 滿洲는맑고 朝鮮은 흐리다 西岸은一般的으로 小雪이잇고 바람은一般的으로 弱하고 多少치위가 덜해젓다

豫報 今夜京城地方은 東便바람이弱하고 흐리다가 小雪이 잇슬模樣이고 京畿道各地도갓다 明日도今夜와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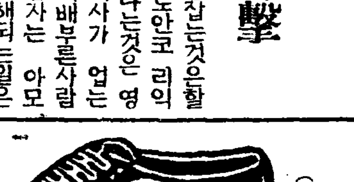
昨日最高 零下一度一 最低 零下一四度三 今朝最低 零下五度四 正午 零下三度

ネオチリン 린지오네 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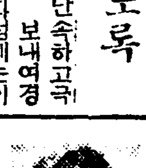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筆生 牛勤人婦女子最適 業書로申込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區寺田町 盛文社

(壹個年間無料修理券添付) 開業三週年紀念謝恩 二割引宣傳 (一月十日迄)



舶來 皮製品 短靴 京城中林洞七十八番地 二見洋靴店 電話本四七六七番



정조혈

高血壓·腦病 神經痛·喘息 中風

病根이되는濁한 血液을淨化하면完治

今津佛埋博士發見·淨化劑의好成績

恢復의歡喜

躍進!! 三和金半額宣傳데이!!

期間自舊十二月一日至十二月末日

(但注文時에는定價에 先金二割을要함)

勿失好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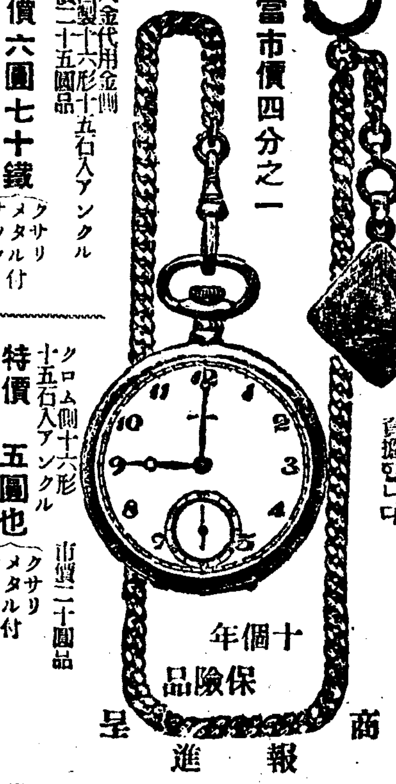
三和金定價表

朝鮮의理化學的技術을자랑하는現代不道德의好商輩들이不好品으로顧客의不安을주는此際今番本堂으로서는此點을遺憾히녀기는反面에三和金三週年記念을機期로犧牲的으로宣傳키爲하야定價半額提供하오니前無後無한此機會를일치마시옵고多數試用하시오면三和金의眞價를절실히아실줄밋슴니다 三和堂 白

◎合成銀品大特賣!!
純銀手箸代用인合成銀手箸
◎毛皮卷首大特賣!!

三和金品製造 金屬雜貨卸商 京城府長沙洞二三四番地 三和堂 電話光一五四四番·振替京城一一九五九番

十八金代用金側新秋特別宣傳大賣出
賣行絶對天下의人氣는歐米洋行으로集中



當當市價四分之一

十個年保險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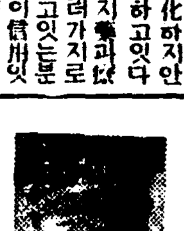
特價六圓七十錢
特價五圓也
特價七圓也
特價六圓也

新義州府雲井町九 郵便局私書函四十二番 振替京城二〇五九九番 歐米洋行時計部

京城府外淸凉里 原病院 精神神經科 腦脊髓科 院長 原振緖 電話光2646

하下血患者여

巡査看守(講義錄)



朝鮮警務學會

藥種商受驗講座

學生募集 玉屋時計師養成所 新義州若竹町十一

腫氣 毒山膏에용히벗고

胃腸錠劑 榮養 わかもと

와 가 모 도

酷寒과 鬪病

煖衣와 溫房은 가장 愚策

寒 冷을 忿하고 溫暖을 갓가히하는것은、病弱者의 心理이지만、療病의 手段만 그릇치지 안코면 寒冷은、오히려 鬪病의 好季가된다。겨울空氣는 大槪淸澄하고 乾燥하며、病菌의 活動도 더 겨울수록 活潑치못할뿐아니라、適度의 寒冷의 刺戟은、皮膚를 通하야 內臟의 諸機能에 조흔影響을 주며、新陳代謝를 促進식히는 効도 잇슴으로써、오직 寒冷만 몹무서워서 엇절줄모르고 避하기만하여서는 안된다 充分하게 大自然의 恩惠를 利用하야 鬪病의 實效를 나타내여야 될 이때이다。

오 직病弱者는 抵抗力이 弱함으로써、좀잘못하면 感氣에 걸니기쉽고 그때문에 病勢를 惡化식힐염려도 잇지마는 그러라고 언제나 室內를 封하고 溫突을 뜨겁게하며 두터운 소음옷이나 목도리、마스크에 싸이워단이는것은 때로 鬪病의 好機를 逸코 헐수업시 乃終에는 肉體를 萎縮식힐수밧게 업게된다 가장 賢明하고 効果的인 方法은 오히려 窓門을 開放하야 外氣와 日光의 惠澤을 잘利用하면 活性헤ー페菌劑「錠劑와가모도」를 活用하야 內部로부터 胃腸을 活潑케하며 榮養을 돕혀서 抵抗力을 旺盛케하야 寒氣에 對抗하도록 하는것이 現代的 鬪病法이 된다。

可驚할 食慾의 增進

「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야 第一몬저 알여지게되는것은、놀낼만큼 입맛이 나고 食慾이 增進되는것이다。大體로 抵抗力이 弱하다고 하는것은、一國家에 比하건대 國防力이 弱하다고 하는거와 同樣으로 即國內의 産業이 衰弱하여젓기때문에、軍隊에 對한 給與가 缺乏되고、兵器彈藥의 配給은 充分히되지못하고잇는거와 갓다、病弱者、衰弱者는 무엇보다도 胃腸이 弱함으로써、그때문에 飮食이 맛나지안타、먹은것이 잘消化吸收되지안는다。그리고 榮養이 順乎치못함으로써、體內의 各機關은 衰微케되며、抵抗力이 弱하게되는것이다。그러치만 食慾이 增進되는것은、胃腸의 機能이 活潑케되며、먹는것이 잘消化吸收되야、體內의 各機關에 兵器彈藥을 供給식히는 榮養이 旺盛하게되는 證據임으로써、肉體의 國防이 되는 抵抗力은 자연强大하게되는것이다

胃腸의 組織부터 튼튼케

胃 腸이 조치못한분은、어떠튼 泄瀉나、便秘나、가슴쓰린 等의 症狀에 부잡히게되면 一時的 輕快感을 求하야서、泄瀉에 泄瀉防止劑、便秘에 下劑、가슴쓰린데 重曹 이러한 姑息한 手段을 손쉬이 取하기쉽다。一時는 그런것으로 快한듯히 輕한感이 잇다가도 藥을 끈흐면 곳다시 再發하야、다시 症勢가 나타나게되며、習慣性이 되든지、오히려 되처서 病根을 깁히 뿌리박게하는 事實도 적지안흔것이다。

泄 瀉나 便秘나 갓슴쓰린 等은 症狀으로써는 모다 判異한것갓지만、그根本을 차저보면 그어느거든지 胃腸을 組織하고잇는 細胞가 弱하야 活動이 鈍하야젓다고하는 事實에 歸着하게되는것이다。그럼으로써 만일 거기에다 胃腸을 組織하고잇는 細胞에 動活力을 주어 그것을 健全케하는 藥이 이스면、여러가지의 胃腸病은 一樣으로 輕快할것으로「錠劑와가모도」는 即 그러한것이 된다。「錠劑와가모도」를 服用하면 細胞原形質賦活作用(京都帝大實驗)이라고 하는것은、胃腸은 勿論、全身의 內臟을 組織하고잇는 細胞에 直接活力은 賦與하야、그機能을 再建식힘으로써、血色은 조와지며、體重은 增加하야、抗病力을 培養할수잇는것이다

感冒와 肺炎의 豫防에

酷 寒期의 鬪病에 잇서서 가장 脅威를 느기게되는것은、流行感冒와 肺炎인바、이것은 언제든지 細菌의 感染으로부터 일게되는것이라고、近年의 硏究에 依하야 明確하게되얏다。그런데 病菌에 感染된분이、반드시 發病되는것이 아니라、혹시 發病하얏더라도 經過에 輕重이 잇다고하는것은、即 抵抗力의 强하고 弱한데 따라 差異가 잇게되는것이다。

錠 「錠劑와가모도」는 단지 榮養劑로써도 脂肪、蛋白、아미노酸、구리코ー겡、燐、鐵、갈슘、삐타민A·B·D·E 等을 完備한것으로서、조제된것인바、前에 述한바와가티、胃腸을 强化하며、肉體自身의 榮養能力을 旺盛케하는 點은、到底히 다른 榮養劑에서는 차저볼수업는것이며、그것뿐만으로도 抵抗力增强의 効果는 充分하다。더욱히 本劑는 一面 體內에 白血球를 增殖식혀서 病菌을 殺菌하며、防禦素를 生成하야 病菌毒을 緩和식히는 作用이 잇는것도、各大學의 實驗에 依하야 證明되고잇는바이며、따라 酷寒에 鬪病藥으로써 價値가 널니 認定되고잇는것이다。

錠劑와가모도 愛用者大懸賞特賣

一本도 空籤이 업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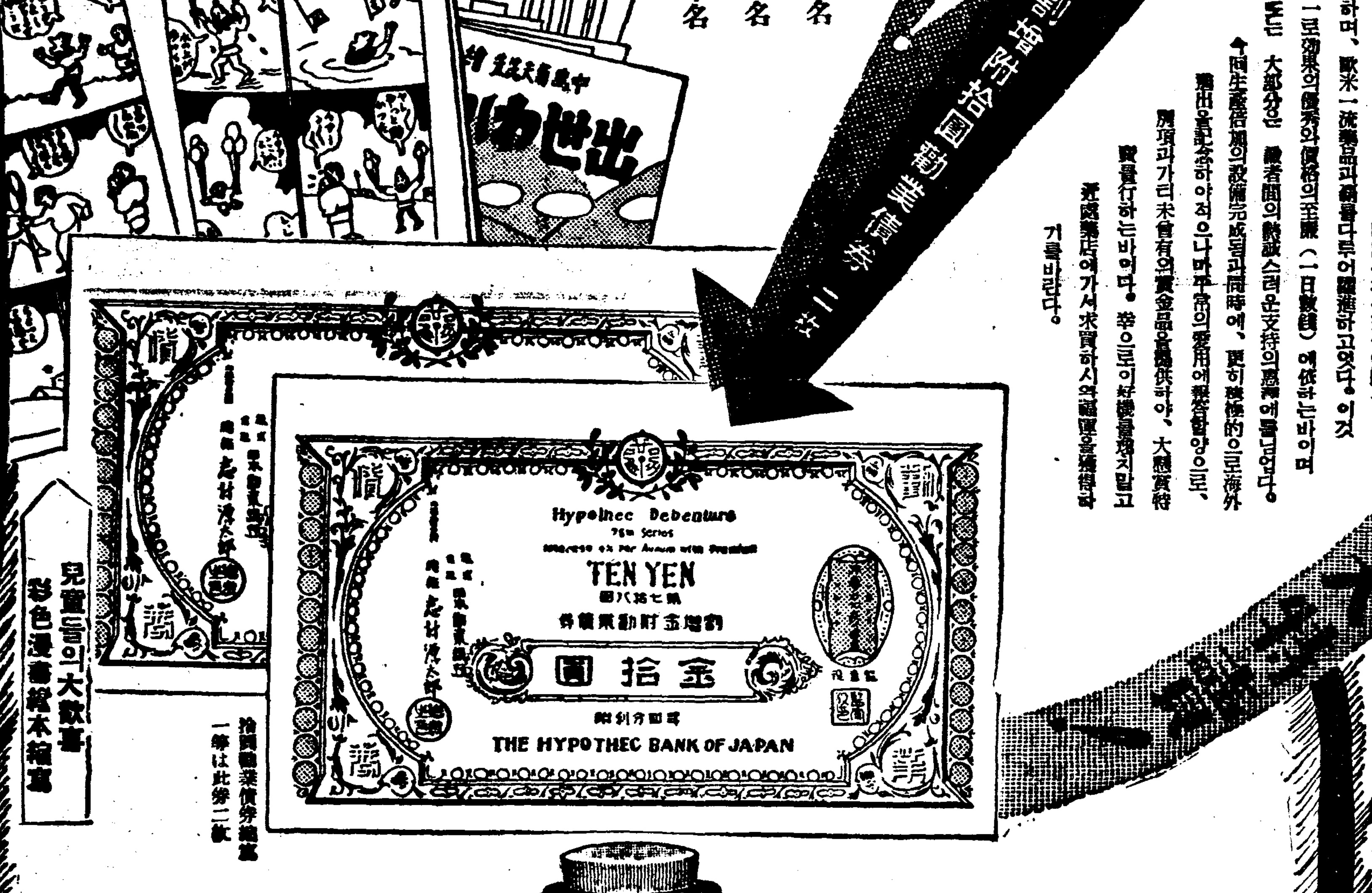
一等 三十円 此の福運 誰に！ 三十圓割增附 拾圓勸業債券 二枚

◇全國藥店에서「錠劑와가모도」三百錠入一個買上每에 左記의 抽籤券一枚 千錠入一個買上每에 四枚 빠짐업시 添付함으로써、抽籤券付라고 指定하시고 求買하시기 바랍니다。 十五枚一組에 對하야

- 一等 拾圓勸業債券 (三千圓割增付) 二枚宛 二名
- 二等 拾圓勸業債券 (三千圓割增付) 一枚宛 四名
- 三等 五圓貯蓄債券 (千五百圓割增付) 一枚宛 二十名
- 四等 家庭에 御重寶書籍 (四六判三百頁) 一部宛 二千名
- 五等 景品은 兒童들의 大歡喜의 美麗한 漫畵 繪本 一冊宛 現品에 빠짐업시 添付

衆、榮養과 育兒의 會가 이미 劃期的 發見藥인 新藥「와가모도」及「錠劑와가모도」를 江湖에 提供하자、化學藥에 뒤는진 醫界의 實績을 博得하야、發賣한지 三年인 今日에 와서는 넘서 吾國藥品中 隨一의 生産高를 보이며、어느덧 販路는 海外三十餘國의 市場에 及하며、歐米一流藥品과 覇를 다투어 躍進하고잇다。이것은 第一로 効果의 優秀와 價格의 至廉(一日數錢)에 依하는 바이며 또는 大部分은 讀者間의 熱誠스러운 支持의 惠澤에 돌닐것이다。

今回 生産倍加의 設備完成됨과 同時에、更히 積極的으로 海外進出을 記念하야 적으나마 平素의 愛用에 報答할양으로、大懸賞特別項과가티 未曾有의 賞金品을 提供하야、大懸賞特賣를 行하는 바이다。幸으로 이好機를 놋치지말고 最寄藥店에 가서 求買하시와 福運을 獲得하시기를 바란다。



類似藥에 注意

近來「錠劑와가모도」와 類似의 效果를 列擧、혀ー가制劑는 是非世의 名을 冠하야 類似品이 續出하지만 本劑는 製法至能한 專賣特許藥으로서、絶對로 他의 模倣을 不許하며、名稱이 似하드래도 그 效果性能에 잇서서는 多大한 相違가 잇는것은 各大學權威者들의 比較試驗에 徵하야 明確한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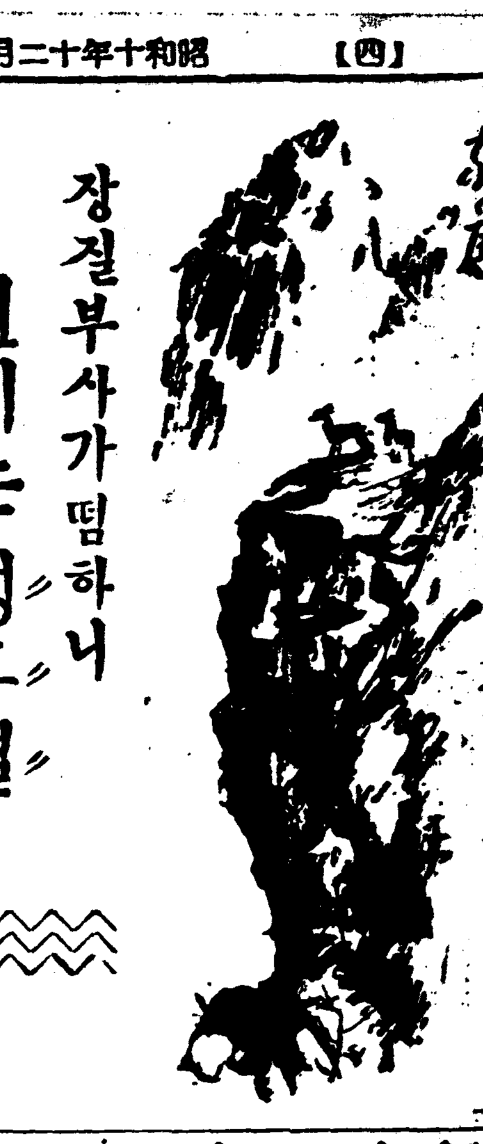
【適應症】
- 慢性衰弱症 肺炎・肺結核・肋膜炎・カリエス・貧血・脚氣・神經衰弱
- 胃腸諸症 胃腸カタル・胃酸過多症・胃アトニー・胃擴張・胃下垂・食慾不振・便秘
- 虛弱乳幼兒 消化不良・綠便・下痢・腸カタル・榮養兒・人工榮養兒
- 姙產婦衰弱 つはり・產前產後の衰弱・乳汁分泌不足
- 疲勞老衰 中年期衰弱・早老・スポーツ・勞働・エネルギー補給

三百錠入 一圓六拾錢

三百錠は大人には廿五日量・十歲前後兒童には約四十日量・五歲前後には六十日量・三歲前後には一百日量に當る。

藥價低廉 一日僅か數錢

東京市芝公園大門內 (株式)榮養と育兒の會 電話芝(代表) 一七五番 振替東京一七〇〇番



장질부사가 떰하니 인제는 성홍열

이병의증상과치료법

몸조섭안하면 병은언제든지

경성시내는 장질부사로 한참ー소동을 하더니 그것이 숙진호로 다시 성홍열이 야단이랍니다。더구나 요새 같은 일긔가 조한으로변하는 바람에 감긔가 만히 생기게 되니까 성홍열의 병균이 떰하서 성하게되는 모양이올시다。보통 우리네 가정에서는 성홍열도 홍역이라고 하지요만은 홍역과 성홍열은 결코 가튼 병이 아닙니다。위선 홍역은 알코나서 딱지가 떨어지지 안치요만은 성홍열은 마마와가치 알코나서 딱지가 모도 떨어집니다。하여튼 성홍열이나 홍역이나 열살이하의 어린애기네들이 제일 걸리기 쉽습니다。애기네를 기르시는 댁에서 특별히 주의하서야 한니다

잡고 삼아서 그 병의 증상을 대강 말슴드리오리다。맨처음은 그저 선웃선웃 알허서 잘 먹지 안코 모든것을어귀찬허 하고 또 대리가 아프다고 합니다。그러케 나흘이나 일혜쯤을 지난 다음 비로소 발반이라고 하야 꼿이 돗습니다。꼿이 돗고보면

신열이벗적올라서 사십도 이상에 이르고인후가 나서 음식을 잘못 먹게 되고 혀가 아조 빨가케 딸기처럼 되야소위 딸기혀가 되야 버립니다 발반으로 말하면 맨처음 목으로부터 시작하야 가슴 등어리 팔 다리의순서로 나는데 사일 이사일재가 지내야 꼿이 슬고 딱지가 떨어집니다。그러나신열만은 사올후만 되야도 벌써 나리기 시작됩니다。그래서 열흘만 지난다면 꼿

보통은도로돌아가게 됩니다。

×

그다음으로 성홍열의 변태적증상、병발증、또는 치료방법등을 소개하겠습니다。

변태적증상 성홍열에는열이업시 병이 나는 수도 잇고 꼿이 업시 병이 나는수도잇습니다。그런경우에는 성홍열이지 아닌지 알어내기가 국히 곤난합니다。

병발증 성홍열을 알는동에 다시 지브테리、심장쇠약、중이염、급성신장염、폐염가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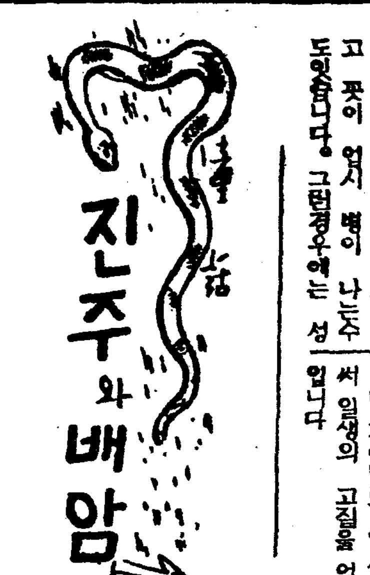
병에걸리기십상쉽습니다。이러한 병발증이일어 나나 안나나를 항상 주의해가야 될 것입니다。

치료법 환자를 절대로 안정하게 해야 되니까 병실은 될수 잇는대로 조용한 것이 조흡니다。그와 동시에 병실은 공긔도 잘 류통되고 또 통창해야 합니다。그러고 먹이는 것은 죽이나 우유가튼 것이 조흡니다。약은 대증투제라 받듯이 일정한 약으로 말할수 업습니다。

×

성홍렬이나홍렉이나 그 병만으로는 어느 긔간을 경과한뒤 대개낫는것이지만 꼭병발증이 문제입니다。그러니까 모든힘을 다해서라도 병발증이 안생기도록 치료해야 하거니와 이미 병발증이 생긴때에는동이만큼 상당히 급히 서둘러야한니다。그러고 심장병이 나나 신장염가튼것은 성홍렬이 나흔후까지 남어 잇는수가 잇습니다 그야말로 일시의 불주의로서 일생의 고집을 엇게 되는것입니다

진주와 배암



❶ 崔秉和

옛날 어느곳에 괴벽스러운 어머니가살엇습니다。어머니에게는『아베이』와『미라노』라고하는 딸이 둘이잇섯습니다。

아베이는 어머니얼골을 쏩바닮고 그리고 마음이 고약하지만 미라노는 아베이와는 아조 딴판으로 마음이착하고 인정이 잇는계집애 이엇습니다。

동리사람들도 이 미라노하고는 정답게 사이조케 이약이도하고 놀기도하엿습니다。또미라노가 숲속에가면 모든새들은 다른때보다도 더곱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들에가면 아름다운 나비들이 미라노의 손바닥에서 날개를쉬고 가지각색꼿들은 방긋방긋 우스며 향기를 보내엇습니다。미라노는 이가리 누구에게든지 귀염을받고 지내지만 어머니와 언니에게는 뜻시 미움을 바덧습니다。어머니와언니는 하로외조일 머라노를 한때쉴새업시 일을 식히고 그우에 밤에는 밥을 드려주는것까지도 허락하지 안햇습니다。음식이라는것은 미라노의 송씨로 맛잇든 음식을 맨들지만 왼통 어머니와 언니가 먹어버리고미라노에게는 감자만 먹게하엿습니다。밤이되여도 두사람은 떠뜻한자리에서 자면서 미라노에게는 거적떼기하게 주지안햇습니다。

이러케 전데를 바더도 미라노는 한마듸도 말대답을 하지안코 식히는 대로 일을부지런히 하엿습니다。너무 지독하게 힘드는일을해서 손피질에에는 반듯이 힌비탈이 한마리가 날려와서

『아가씨! 또 오늘도 숨피하시는구료。숨은일이 잇드래도잠으시오。이제 깁흔날이옵니다。』하고 정성것 위로하야 주엇습니다。

미라노가 하는 말은 어느것하나 편한것이 업섯 습니다。그중에도 물기려 오는것은 제일힘드는 일이엇습니다。우물은 숲속에잇서서 그곳까지 갈라며는 반시간이나 걸리는데 하로에도 몃차레식 가지안흐면 안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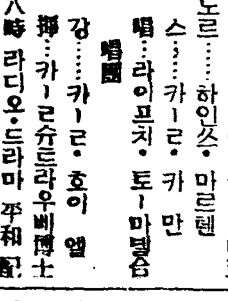
어느날 다른때와가티 숲속우물에서 물을푸고 잇스랴니깐 그때 숲속에서는 선녀(仙女)가 할머니로 변해가지고와서 목이말르니 물을좀달라고 하엿습니다 미라노는 다른때와가티 정남게『사간만 기다리십시요 곳 시원한물을 떠드리겟습니다』하고 공손히 물을받처드렷습니다。할머니는 비로소 기운이나는 듯하시더니 매우、깃버하시면서『당신은 참무어라고 말할수업시 착한아가씨입니다。나는 인사로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선사를하겟습니다』하고 말하엿습니다。선녀가 이러케 말하니깐 할머니에게 물한바가지 드리는것은 으례히 할노릇인데 그것으로해서 선사를밧는다는것은엄지가업다고 말하엿습니다。그러닛간 선녀할머니는

『그것은 당신말이 올흔지도모르것소。그러나 나는 당신의어진마음에 감동이되여서 선물을하랴고 하는것이요。조흔일의보답은 언제든지 조흔일입니다。이제로부터 당신의 한마듸한마듸말이 왼통 꼿치되고 보석이되여서 입에서나올것이요。이것이 나의선물입니다』하고 선녀할머니는 그대로 숲속으로숨어버리엿습니다。

미라노는 깜작놀나서 그곳에 우둑허니 서잇다가 얼른도라가지 안흐면 꾸중을들을것스므로물통을들고 도라갓습니다。집으로오니간 문간에서잇든 어머니는 눈을흘기시면서

『무엇을 꿈지럭 꿈지럭하고잇섯니。누가너를 산보를보냇술아니』하고 큰소리로 책망을하엿습니다。

라디오



二十日(金曜)

◇午後六時 童謠 一、獨唱…아…웨실리폰獨奏 二、동ー작미…介베르트作曲 三、내故鄕으로보내주오ー제임스 블론드作曲 四、故鄕의노래ー武田藤三作曲 三、자장가…브람ー스作曲
金 永 祥
金 建 藻

◇同六時二五分 趣味講話

二十一日(土曜)

◇午後○時五分 (東)輕音樂 一、맨돌린合奏 (가)伊太利의復活……아멜리作曲 (나)丹靜喜도나우江의小波…이바노빗치作曲 二、木琴과피코로獨奏 (가)피코로獨奏 鶯의歌曲『미恕』비레作曲 (나)木琴獨奏 갈롭프섀날니기」…프리ー드作曲 (다)二重奏 (一)行進曲『靑葉의잡새』……스카라作曲 (二)行進曲『星條旗야永遠하라』스ー자作曲
指揮 東京만도ー린 網代 景介
木琴 星出 義男
피코로 岡村 謙吉
피아노伴奏 江口 四郎

◇同三時一五分 趣味講話 年賀狀로맨스 李 軒 求

◇同六時 管絃樂 一、愉快한사람…롤스테드作曲 二、伊太利皇帝行進曲…가벤치作曲 三、西班牙舞踊…모스코프스키作曲 四、誠 悲…타이케作曲
DK 管絃團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全 弘 鎭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想의一年(五) 映畫界 安 鍾 和

◇同八時 獨唱 一、歌劇『탄호이저』中에서 엘리자베트의祈禱…빠ー그너作曲 二、하날의天使…멘델스존作曲 三、언제가나…리리오카라니作曲 四、아베마리아……슈ー버ー트作曲 五、歌劇『사도코』中에서 印度의노래…코르사코프作曲
피아노伴奏 金永煥
朴景嬉

◇同八時三〇分 古談 急人錢 車 靑 吾

◇同九時 伽倻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併唱 (가)短歌 竹杖芒鞋 (나)唱劇調 박다령
姜太弘
歌手 趙成俊

◇生活科學 育兒 會生活 鄭光烈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胞의一年(四) 文藝界 金東仁

◇同八時 平時調 一、平時調 二、男唱지름 三、客내고 져、四、平三、山中 五、小春香歌 六、川打令
李靑月 洪桃花
長鼓 張鶴伊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一、소나타 G短調……타르티니作曲 第一樂章 아다지오第二樂章 논트롭포·프레스트 第三樂章 라ー르고 第四樂章알레그로·코모도 二、크레모나의 바이올린製作者……후ー바이作曲 三、알레그로……피오코作曲
文 學 準
피아노伴奏 A·L 벡커

◇同九時 古談 至誠感天 張志浩

◇同九時 合唱 一、처밤…코ーㄴ쯔作曲 二、요셉과마리…요ー르作曲 三、잠자는牧者들…(佛蘭西民歌) 四、聖誕歌…올스트作曲 五、牧者들아드르라…라스作曲 六、피는月桂꽃보라 七、聖誕前夜의讚頌歌 八、聖誕오라토리오中에서合唱…빠하作曲
인터내슈날코ー라스
指揮 英 米 理

◇同九時三十分 (東) 時報、뉴ー스 氣象通報 翌日順序 뉴ー스再放送

◇同一〇時 靜粛入換放送 歌曲

聲香園 一、器樂 二、初樂 三、器樂 四、 六、太平歌
河圭一 安鶴仙
玄琴 金冏淳
洋琴 金相淳
大琴 金永根
杖鼓 金一宇

二十二日(日曜)

◇午後零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沈淸歌中 祠堂下直하는데
林小香 鼓手 池龍九

◇同一時二〇分 레코ー드 音樂

◇同六時 노래공부 (一) 一、별하나꽁꽁…金一葉謠 玄雲作曲 二、英語 공부…金富全謠 玄雲作曲 玄雲

◇同六時二〇分 兒童日曜新聞

◇同六時二〇分 心田開發講話 心田點 金 泰 治

◇同七時二五分 (東) 國內放送 크리스마스 音樂國際放送

◇同七時三〇分=獨逸로부터=交響曲『聖子나셋네』…빠하作曲
알토…도로테아·슈레ー데르
테노르……하인쓰·마르텐
바스……카ー르·카 만
合唱…라이프치·토ー마넬合唱團
올 강……카ー르·호이 엘
指揮…카ー르슈트라우베博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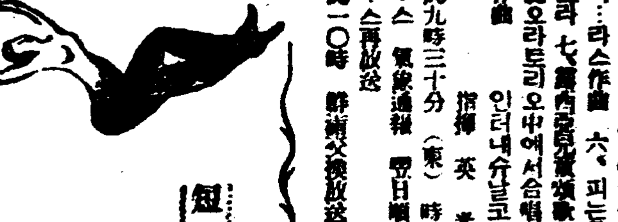
◇同八時 라디오·드라마 平和記
役 요셉…鄭寅燮 마르다…朴魯多 베드로…張河淑 압비…白英寶 敵兵…林慶烈
女學生써클
演出 金 少 蘭
效果 效 果 班

◇同八時三五分 家庭歌外 一、家庭歌 二、긴날봉가 三、자진날봉가 四、개성난봉가 五、경사거리 六、도라지打令
李 眞 紅

曆

十二月廿一日(土)
十一月陰 庚子、大 廿六日
辛未·土·女·危
●大寒八日(陰月十三日)
●冬至二十二日(陰月廿八日)

短篇小說 惡夢【十八】



咸大勳 作
夕影 畫

그러나 영자는 온천하여성들을 다모하가지고 조직적으로 남성사회에 반괴를 들생각보담 웬일인지 그한사람 원절이게대한 복수심이 나날히 더해갈뿐 참을수가 업섯다 여자란 항상 리지보다도 감정이 압서는 일이만치만 더구나 조직적훈련이업는 영자로서는 아무래도 원한에 매친 원절이에대한 감정이 몃배나더 리지를 압서고잇섯다 몸이 무거워갈수록 배속의어린애가 음직일수록 그것이 원절이때문에 이러난비극이란생각할때 영자는 그팬팬스런 원절이가 럽만흔 송충이처럼 진저리나게미워졋다。

×

어느비오고 바람치는밤! 영자는 안타가운 복수의불길때메 잠못들고 전전하든끄테 우장을 두르고 집을나섯다 벼락이라도 칠뜻이 번개가 번적이고 우뢰소리가 요란한날세는 세찬폭풍이 모진비를실어다가 이리저리 휘갈긴다、우루루땅와삭…」밤은 머장을감아붓은듯 캄캄하다

연약한몸을 비속에 비틀거리며 지향업시 거러가는 그모양…영자는 독한마음을 먹고안국공원절이집을 차저헤매엿다담넘어로 아득한 불빗은 조으는듯 흘러나오것만 오늘밤만은 조용리드『엘레지』소리조차들리잔는결보면 밤도꽤깁허 아마도 그들은 잠이든 모양!

대문을 지긋히 밀어보니 문은 굿게다치어 끔쩍도 안는다

『이담을 넘을까?』

치위와 원한에 온몸을 떨리는몸으로 대문압메 한참섯다가 영자는 그엽단장우에 손을업섯다 찬비가 보드럽손을 휘갈긴다 옷자락이 끼치는결 힘을다해 무거운몸을 단장위로 올려노앗다『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이말은 여자게는 때로는 초인적힘이 잇단말이다 영자도 넘기어려운 담을 넘은건 결국여자의 때때로일어나는 초인적힘이엿든것이나 아닐까

비바람소리에 담넘는소리도 들리지 안흔모양 영자는 불빗흐르는 동편창으로 갓가히가서 저주손끄락으로 문구녕을 뚤르고 방안을 드려다밧다 비단이불이 물결치는속에 맨아랫목엔 어린애가 누엇고 그웃목엔 경숙이와 원절이가 장침을 가즈런히 베고 평화로운 꿈속에 잠들고 잇다。

『저런 도적녀석이』

질투、시기、분로、여성이가질수 잇는 모ー든 독한감정이 머리끗을 옷싹하게 전률시켯다。참을수업는 원한의불길은 이글이글가슴속에 불타올랏다。

참아못할짓가지 생각이되여 멧번밧귀을 돌렷든도더괴랑신의식은 감작히 악(惡)의화(華)로변하여 영자의마음을 싸ー늘하게 하엿다

『저걸저걸……』

입술을뜻뜻 송곳하여 죽으로부르짓고 영자는 품안에서 솜방망이와 회발유를 끄내엇다 다시 영자는 한번더 문구녕으로 방안을 드려다봣다

『으응?』

그때원절이가 기지개를피며 도라눕는다 옷사해지는몸을 도사리고 영자는 충염된눈으로 그들을다시 바라보앗다 도라눕은원철은 아ー모것도몰은 다는듯이 여전히 콜콜사고잇다。한참동안이나 다시 엿보다가문구녕에소리안나게 좀더크게내인뒤에 영자는 그솜방망이에 회발유를적처불을붓첫다 그리고는 앗신해지는 정신으로 불붓는 솜방망이를 이불위로 던젓다。방망이는 원절이 아렛도리이불귀에 떠러저 붓기 시작한다。

『악……』

영자는 자긔도몰으게 소리를치고 그만 비바람치는 뜰악을나서 담을다시 넘엇다。그순간

『그누구야?』

소리가 등뒤에서 번개처럼 번쩍들렷다。영자는 옷싹해지는몸을 도사리고 숨다름첫다、그러나얼마를가는동안 뒤를따르는 사람은 업고 모진폭풍만 휘갈기는결보니 암아도 그건 영자의착각이엿든 모양……

×

그다음날아츰! 비는개엿건만 원절은 온몸에 화상을입고 ××병원에 누은몸이됏다。불이칩의꺼정당기엇슬때야 겨우 잡을깸 원절은 자긔도 모르게문박그로 뛰여나갓다 그리하야 악수로퍼붓는비에 불붓는옷은 겨우 꺼지고 자긔는 그자리에 긔운업시 쓰러젓섯다 이러는동안 경숙이도 깨고 어린애도 깨고 뚤아랫방사람들도 놀라깨여 몽몽히타고잇는 불길을 겨우잡고나서 쓰러진원절을 ××병원으로 싯고왓섯다 병원에 누은원철은 이틀동안이나 거이 혼수상태에 빠젓다가 사흘째되는날부러는 미친사람가치 이따금소리를첫다

『아!영자……하하하……우리결혼식을……아이무서워……아이아호……하하하 그러치 이뿐우승을……하하하……』

무서움속에 떨리는맘으로 침대엽헤서고잇는 경숙은 무슨영문인지도 몰으고 미친사람가튼 원철을 걱정스러히 바라보고잇섯다

『영자! 글세 내결혼식을 줌준대두 그리구그땐 내호적에 넛는대두! 아니 영자 저건머야? 아이무서워 아이 아호 아호 저것봐 불! 칼 독가낫……』

×

입에 거품을 물고 원절은 침대위에서 굴러떠러진듯 뒤굴고 잇섯다

×

그날저녁 석간신문엔 영자가 방화범으로 붓들려간 긔사가 눈물겨운게 보도되엿다 처상의경로를 이야기한 가지가지는 못자의 눈에 이슬을 매처주엇다 (完)

—純白・無脂防—

新春을바라보고
希望에의一路를—

歲末이
新春에의序幕인것처름
ウテナ의아름다운것은
겨울이나봄이나、언제나變함업
는永遠한靑春을지속케합니다

보얏고
바탕살부터빗나고고흔것
당신의雪印은
당신의花印은
늘 당신을기다린답니다

憧憬의
處女雪과도가치
淸純한香氣
상긋한爽快美

ウテナ雪印クリーム (無脂肪) 三十二錢、六十四錢
ウテナ花印クリーム (脂肪性) 五十五錢、一圓十錢

—東京・久保政吉商店—

10.12—7.1

消化不良에
頭痛眩暈에
인단

仁丹五種

家庭常備藥으로서 **大粒仁丹**

懷中常用藥으로서 **小粒仁丹**

社交포케트用으로 **銀粒仁丹**

高級懷中藥으로서 **ローズ仁丹**

芳薰常備藥으로서 **麝香仁丹**

치위쯤이야!!
몬저그元氣와精力을
仁丹이가진補精과興奮
과增健의藥效를미드라
特히歲暮다!歲暮는活
動期다!活動에는몸이
다!그몸을仁丹으로……

눈우에쉬면서、먹는仁丹

痛快한直滑降、優美한스람輕한姿勢와땀밴몸을눈우에쉬고、거기서맛보는仁丹의爽快한感覺! 이것이야、잇지못할맛이다

따뜻한싸른에團欒하게

겨울을이저바린幻想에잠기면서、웃고、노래하고、떠들때에、仁丹이잇는것이얼마나그平和와、潑剌을印象깁흐게하여줄가。

잔치時間에仁丹의香氣

단것、짠것嗜好物은여러가지가잇슬것이나。食後에仁丹을먹는것만은누구나다한가지다。食後에떠오르는仁丹의芳香에도그것을알것이다。

精力の補給

치위를克服하야活動하라! 그에는무엇보다도精力이다。精力만充溢하면火爐도暖房도오히려귀찬타。仁丹의愛用家여! 特히仁丹의効果를滿喫하여주시오。仁丹의動植物兩性호루몬과비타민、朝鮮人參等의藥効는、貴下에게充分한精力源을供給한다。

適度の興奮

元氣압헤는치위도업다! 애들을보라! 애들이바람개비란것은、노는興味와屋外에나가는자미와、輕한興奮에刺戟된元氣잇는關係다。一杯의술로元氣가나어치위를몰은다。況仁丹의適當한興奮의藥効가合理的으로겨울을元氣잇게살어가도록한適當策임은勿論이다。

健康の増進

健康은抵抗力이라고한다。人間의身體에는、自然에게順應하는것보다自然에抵抗하야사는것이다。그러고、그健康을培養하는中樞는、무엇보다第一로榮養이다、胃腸을調整하여서榮養을充分히하는것이全身的健康을나게하는것이다。仁丹의健康에의使命은여기잇다。

秋冬星象 ⑥

雙魚宮과 春分點

星象을 쫓은 東方의 博士

安在鴻

× 星座와 十二宮이 처음에는 合致가든것인데 後에 하나는 純然한 星座의 이름으로되고 또하나는 黃道上의 區分으로 각각다른意味를 가지게 되엿다 星座는 今昔이 變함이업지마는 十二宮은 每年五十秒식 옴겨가는 『歲差』에依하야 黃道와함께 점점西으로西으로 移動하고 잇다 現在『白羊宮의原點』이라고 부르는 春分點이 인저는 羊座에는 잇지안코 바로이웃인 魚座에잇는 것도 奇한것이라고 한다 春分點은 天球의 原標로서 即天界의 『그린위치』이니 모든별의 經緯度는 여기서부터 測定되는것이다 每年 春三月二十日이 지나 요새所謂彼岸의 中日로되면 太陽은이 春分點에 오는것이다 春分點은 假想된 하늘의 赤道와 假想된黃道와의 마주처진 자리로서 마찬가지 假想된點이다 그러나 이것은 地球에서본 天體運行의 實際에依한 決定的인 約束으로서 言하면 天球上의 定點이다 그大略의 位置는 카시오페아의 B별과안드로메따의A별과를 直線으로 그옷고 그것을다시 두별의 距離만치 南에떼인 點에 잇는 것이다 달리말하자면『페가수스』의東南의별(即東南의 아래별)이 이春分點과 그 A별과의 中央으로 되므로 알기가도쉬웁다 春分點은 曆學上의 根本的線이니 이것의 確的을차즈려고 東西의 天文學은 그前半生을 바치엇고 漢陽朝初期까지도 朝鮮에서 그것이確立치못하야 자못 識者의苦心을 차허든것이다

× 山羊座는 쓸쓸한 星座이지마는 여기에는 科學上에 생각나는 이야기가잇다 지금부터 百餘年前에 歐米天文學界의 一大問題는 天王星의 運行이엇섯고 『하-시엘』以前과 그以後와 그리고 그 最近의 觀測과를 計算하야 天王星의 軌道는 決코 簡單치 안케엇다 어느學者는 드듸어『뉴-톤』法則까지도 의심하기시작하엿섯다 그러데 英佛兩國의 두天文學者가 偶然히 따로따로 이問題를 研究키로 되어 똑바그로 同一點에 到達되엇섯다 即 天王星은 未知의 어느별에게 끌리고 잇다는 것이엇섯다 伯林市의 望遠鏡觀測者는 이를연 一八四六年 九月二十三日 이 未知의 별을 發見하야 數理上으로 추리한 그들의 預言을 事實에서 證明하엿다 發見의 位置가 實로이 山羊座의 東端 D별의西北이엇섯다 그때天王星은 魚座에 잇섯고 이에發見된未知의별은 即海王星이엇든것이다 이것이 理論의勝利, 數學의勝利, 뉴톤力學의 偉大한 功績이엇든것이다

× 水瓶座도 별이잘고 도어찌하야 [illegible]이 아니면아니될지도 모를바이나 결과는 因緣이기엇든지 바벨로니아에 傳하는 太古의洪水는 太陽이 이星座中에 잇슬때에 일어낫것이라고 한다 魚의 星座가 春分點으로 되어서

假說가엇든 셈이지만 傳說에 古代로마의 으로 七四七年(西紀前七年)이 魚座에서 木星과 土星과가 연방새차려나 會合하엿섯고 이것이 即 西曆紀元의 萬하는 『베들레헴의 별』로서 東方의 博士들이 말에채질하야 西으로와서 意外에도 『유대아』의 마을에 『예수』의 降誕을 보게까지 하엿든것이라고 한다 메르세우쓰座의 天禮狀星은 이미말한바어니와 씨메우쓰의 D별도 거의이와 同一한 種類의것이오 山羊座의 AB두별은 即牛宿의 首星으로서 雙眼鏡으로 잘보이는 二重星의標本처럼 떼이는者이니 朝鮮과가튼 깨끗한 大氣 속에서는 肉眼으로도 볼수엇다 안드로메따의 星雲은

北緯 외안에는 星雲가 잇스나 아홉ㅅ이빗나는바로 肉眼으로도 눈녀여 보이는 者이오 望遠鏡으로보면 太陽形으로 소용도리치는 四天星雲中의 제일큰 것이니 二度에빼친 所謂『안드로메따 大星雲』이라고 有名한者이다 一八六六年 이星雲속에서 新星이하나 나타나서 學界가 북적하게하엿는데 그後 近年에올스록 다른데서도 연해연방 新星이 發見되는터이다 안드로메따의 東南인 三角座 即天倉宿에도 渦狀星雲이 잇서 M三十三番이니 望遠鏡으로보면 雄大한 宇宙의構成이 보이는데 그〃끌〃은 이미 헝클어저 간다고한다 그距離는 九十萬光年이라든가?

學藝

映畫一年의 槪觀的回顧

特히製作된映畫를中心으로

❶ 朴基采

가는乙亥年은 新文化工作으로서 朝鮮映畫藝術의 發展向上을 爲하야 퍽이나 意義잇는 해이엿다.

朝鮮映畫가 생긴以來 十有年의 긴歷史를 가지게되엿스나 今年이 最高의 多量的生産을 한해일뿐만 아니라 한거름더나아가서 토-키까지 製作된해이엿섯다.

이가 비록實的으로는 말할수업다할지언정 一年間에 朝鮮서 十三四個의映畫를 大量生産하엿다는것은 우리로하여금 朝鮮映畫界의將來를 觀케하여주엇다고 말아니할수업을것이다.

그런데 어대서 어떠한映畫가 製作되엿섯나?

映畫	監督	映畫社
바다여 말하라	李圭煥	靑鳥
水車	方漢駿	中興映畫社
靑春	金蘇峰	京城撮影所
大盜傳	金蘇峰	同
洪吉童傳	金蘇峰	京城撮影所
[illegible]	李明牛	同
無花果	春史	朝鮮키네마
그림자	同	同
江건너마을	羅雲奎	漢陽映畫社
빗가가는人生	李圭煥	敎育映畫製作所
銀河에흐르는情熱	安鍾和	金剛키네마
春風	朴基采	映畫時代社

이로서 上映되게만을 羅列하야노앗스나 이外에도 撮影이完了되어 未封切品으로『그후의李道令』『아리랑고개』『아리랑 그후의 이야기』等과또 撮影中에잇는『薔花紅蓮傳』이 잇스며 더욱이 우리들로서도 製作되엿섯다고 하는말을 드른記憶이잇다.

이제今年度에 製作된映畫를내 自身이 一一히드려 評價를한다는것보다도 오로지 槪念的感想에不過한것을 적어보고저한다.

『水車』이는方漢駿氏의 첫作品이엿섯다. 그스토리에 잇서서는 비록構成이되지못하엿섯다고 볼수가 잇섯스나 監督者의 그意圖가 象徵的이요 進就的이엿는대 好感을 갓게하엿슴뿐만아니라 모조리新人들을 登場식히서 맨손을쥐고잇는 朝鮮서 그만한映畫를 만드러내여노케 될때까지는 여간한苦心이 아니면 아니될것을안다.

그러나 이作品에서 만흔遺憾을갓게되는것은 朝鮮서 처음試驗이라고할만한 夜間오-푼撮影에 라이트를 다르는데까지 가서 專門技術者를 다려다가 使用하엿는데도不拘하고 그効果는 우리의期待에 어그러지고 마럿섯다.

〃洪吉童傳〃이는朝鮮의 古代小說을 尹白南氏의 脚色으로 映畫化된것이엿섯스나 우리는 이作品에서 映畫的으로 香氣잇는藝術味를 取할수가 업섯다。本來 低級한映畫편을 相對로하야 興行價値를 本位로한 映畫이엿기때문에 果然興行成績에잇서는 成功을하엿섯다.

〃無花果〃이는 그製作態度가 非良心的이엿슬뿐만아니라 映畫的으로보아서도 監督春史氏의手腕을疑心할만큼 未構成的의作品이엿섯스나 그意圖만은 朝鮮現實의斷面을 把握하려고 애를썻다.

即 無花果에잇서서 우리들이 보는바 朝鮮文壇이 얼마나 空虛한存在로서잇스며또한되지못한 自尊心에依하야얼마나만흔無名作家가抹殺當하고잇는가를 微力하나마보혀주엇스며 또 그뿐만아니라 朝鮮의 文壇까지도 한거름 더나아가서는 所謂朝鮮의 藝術陣營이라는곳에서 얼마나 無名作家를 虐待하는가를 表現하기에 애를 쓴作品이엿섯다.

『銀河에흐르는情熱』이는 安鍾和氏自身이 原作脚色을兼한 作品이엿섯다. 製作『곤의金』이 不利한대만흔原因이 잇섯겟지마는 結局氏의前作『靑春의十字路』에 比하야 뚜렷한努力은不足한作品이라고 말아니할수업다. 나는 이責任이 安鍾和氏에게만 잇다는것보다도『銀河에흐르는情熱』에 關與를 가진분들에게도 다-가른責任이잇스리라고본다.

映畫藝術은 決코 小說이나 音樂이나 繪畫藝術과가튼 性質이다른 綜合的藝術이엿슴으로—

『江건너마을』이는羅雲奎氏가 單純한監督으로 轉向을하야 第一回作品으로 發表한 映畫이엿섯다.

이映畫의 製作動機가 엇지되엿든 朝鮮映畫界에 功이 만타고볼수잇는 羅雲奎氏가 監督으로서 그手腕을 世上에 뭇는作品이엿기때문에 우리는 여간한 큰 期待를갓고 잇섯든것이 아니엿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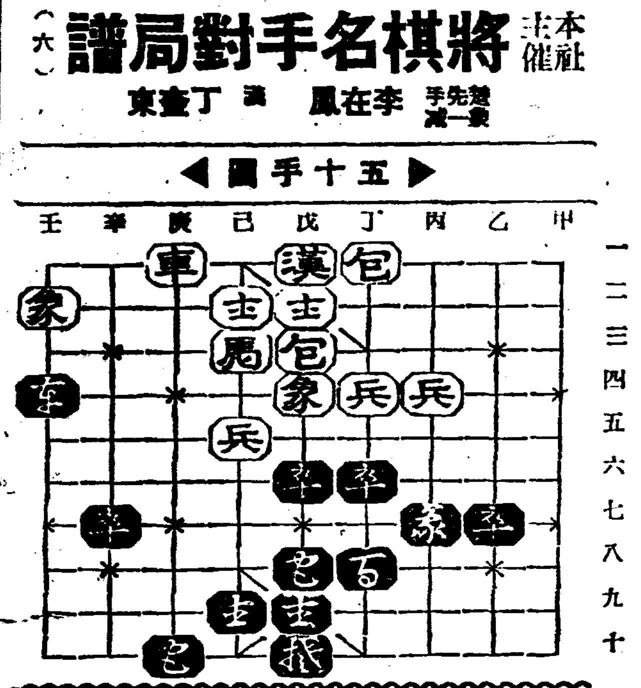
그러나『江건너마을』은 우리가 期待하든 作品은아니엿섯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것이다 무엇보다도 脚色이 散漫한대다가 表現手法에 現實을 無視한대에 큰原因이 잇섯슬것이다 그러나 어데인가 羅雲奎氏의 特性을갓춘 금 鏡視할수잇는 作品이엿섯다 農村生活의 斷面을描寫하려고 苦心을한 態과 朝鮮의 情緖를 그리려고 注力을하엿섯스며 新映畫的手法의『모-타주』使用가튼대잇서서도 有意義한氏의 映畫的構成法이엿섯다 그反面 畵面의 連結이 統一되지못한데가 만헛스니 이가不滿하엿다면 不滿하엿다고 볼수가잇섯다.

將棋名手對局譜 (六)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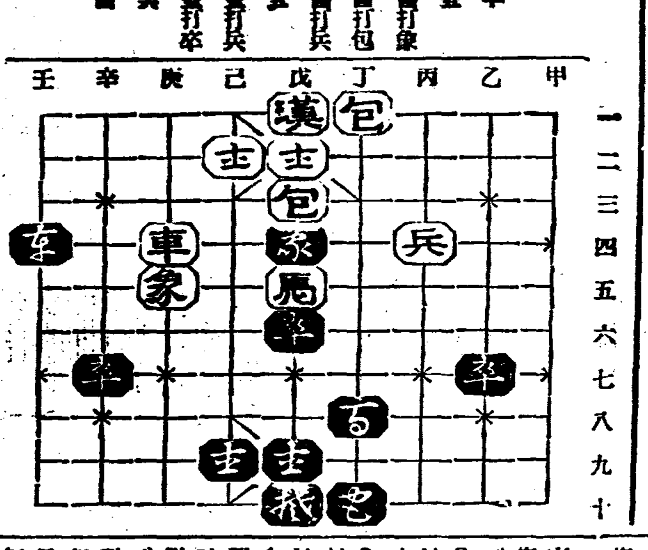
楚先手 李在鳳 對 漢 丁奎東 第一局

◀五十手圖▶



◀六十手圖▶

庚十包一丙十	壬三象一庚五	戊八包一戊四打象	丁二兵一戊二打包	丙六包一戊四打兵	戊五兵一戊五	戊八包一戊六打兵	己五馬一戊五打卒	丁八包一丁六	庚二車一庚四



隨筆

斷章數三題

❶ 蔡萬植

(1)저무는歲色… 其他

이저바렷다가 깜박 생각이 난것처럼 해가 분주-히 저물어 가고잇다. 사람들이 수선을 피우는 탓이겟지만-

◇

열이틀을 접으면 또 한해。머리라도 히엿드면 그것으로나 나이갑을 하지 아니하도 머리렴은 걸고 무엇으로 헝나히 먼는 핑게를 대나.

◇

호젓한 재ㅅ빗 하늘에 멈지러가는 세월이 우울은하다

떼메로 내려 갑기웃기 흘근 쇼크를 事件-지금보다 더욱해도 조흥니 左右間 어느便이 되엇든 이 초조한 末梢神經的 不安을 쓰서가게할 迫力잇는 자극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그저 목혀 너머가고 내밀끄러서 저-기 무렴아메까지 토라토라 금 그어노흔 금하나를 도하나 건너서느니라 하는갑험한 쎈치메탈만이 점어시 여든다

◇

내 아버니 내祖父 내曾祖그들은 다각금 그時代 그時代의知識層이엇섯다 그러나 祖父는曾祖父가 가지든 生活을 그대로 물려바더 하엿고 社會的運命을 同一하게 헷스며 아버니는 祖父의 生活을 또한 그대로 물려바더 하엿고 社會的運命도또한 同一하게 하엿다 그네는先代의 經驗을 그대로 그대로 몰려바더 헷슬 따름이다

그러나 나는-아니 우리 이 世代의名色 知識群은-生活의 새 事實을 바로 눈섭미테 當面하고잇다

個體의 總和이면서 個體와는 다른 知識群全體의 運命은 歷史的으로 이미 決定이 되엇단다 그러나 個體는 그압헤서暗中摸索을하며 不安에 초조하고 잇다

◇

禁斷의 果實은 우리 自身의 손으로 훔처먹은것이 아니다 우리의 바로 前代가 自己네의 經驗自己네의 運命만 녀여 우리에게도 그것을(禁斷의果實인줄을모르고) 다마귀여워라고 먹여준것이다

그리하야 知識의 饑待時代는 온것이다 勿論 時代가 식히는 한 必然의 產物이지 아무의故意도 아니다 그러나 個體로안저 생각하면 억울하다

◇

여름夕陽의 무지개처럼 燦然하든 後光은 헤멀곱하게 褪色이 되어섯다 光明의 保持者 人類文化의 建設者라는 名譽로운 稱號는 빼가 빠지는 일을식히고 責任을 주지아니하는 主人의 입에부른 헛 칭찬이다

그럿지만 反抗의 힘조차 타고나지못하고 오히려 榮光스러워 滿足하는 文化的賤民-나自身 및 그대들。

새해에도 그 候補者가 一三千名이나 생겨난단다

◇

그러타고 人類의 文化가 向上되어가는데 知識의 所有者의 參加를 否定함은 아니다 도리어 꼭 必要하다

그러나 오늘의 文化는 결국 바리文化다 知識의 所有者의 거의 一部分이 『參加』라는 美名미테 거기서 最高의 價値를맛보고잇지 남은 大部分은 知識을 주체하지못하는 無能力者이다

商店이 工場에 注文한 商品은 그것을 가저다가 다 팔지못할지라도 責任을지고 工場에 그代價를 치루어야한다 그러지못할바이면 破產을 해야한다

그러컷만 文化生産者는 아모리 남어넘처도 그注文者들이 그處置에 責任을 아니저도 조캐되어잇다

『工夫해야 이世上에서는 산다』 이러한 不渡手形을 發行한先輩(!)들은文化의 向上은 부릴데도 업는 文化生産者의 氾濫이 基本條件이 아니라 그들을 吸收 消化식힐土壤가 잇서야한다는것을 아주도깨닷지 못한다

그것을 利用할만한 經濟的條件을 가춘 極少部分의 사람에게만 그 惠澤이 미치는 절룸바리文化 그것은 多大數의 사람에게는 苦痛의것이다

사람이라고 주는것을 밋고 그러나 民衆은 『二醜化마네슘』-를 어더먹엇다 나도그을 어더먹엇다 그래서 이러케 끌을 찡그리고잇다

배터바리자니 이미 혀에배엇고 참자니 너무 쓰고。

米國의女流劇作家

「유-진·오니일」夫人大作着手

『유-용』夫君과함께 「길드」座에 上演하게되엿스며 米國文壇에 名聲높은 劇作家 유-진·오니일夫人은 最近 自宅書齋에서 往訪한 新聞記者에對하야 다음과가튼 感想을말햇다。

『今番의作品은 나에게잇서는 非常한大作이다 나의作家生活에잇서 一大轉機로된것이라고생각한다 될수잇는대로는 努力하려고한다 『레-마』는 米國의어떤一家를描寫한것인바 百二十五年의 時代的變遷을 描한것이다라고』 의大作에着手햇다。新作은米國의一家庭을 中心으로 百二十五年의 米國의歷史를 展開한 長篇『드라마』인데 八篇의戱曲으로 成立된것이다 이八篇은 各各其自體가 獨立된것이나 그러나 八篇은『와그너-』의링그와 가티 歷史的으로 渾然한 一體를 일우운것이라고한다。

完成된 大作品은 모다『유-

新民謠의再認識

아울러日本民謠運動의昨今

(7) 金思燁

一九〇六年에 雜誌〃白百合〃은 民謠特輯號를 내이므로부터 詩人들가운데 民謠創作을하는 이가 만히輩出하게되엿다。 이때에輩出한 詩人들은 橫瀨夜雨 高安月郊 上田萬年 野口雨情 平井晩村、 좀後에 나온이로、 福田夕陵 人見東明、 北原白秋等諸々엿다 이中에도 白秋는가장傑出하엿스며 現詩壇에 잇서서 唯一한 民謠詩人으로서 읍히 그일홈이 알리워짐는同時에 產業革命後의 新民謠의 力作을 試驗하야 큰業蹟을남기여노앗다

그리고 압해始作된 文部省의蒐集은 一九一九年文藝委員會編纂으로 俚謠集이 公刊 其翌年에 高野辰之、大竹紫葉共編인『俚謠集拾遺』가 刊行되엇다 其後今日에이르기까지 或은全集으로 或은單行本으로 出版된 民謠에關한 理論과 研究는 不知其數이다 다음에 講演 演奏 或은協會設立等은 紙面의關係로 一一히 例擧하지못하고 그中 重要한것만列擧하면 一九一八年 東京女子音樂學校에서 橫瀨夜雨와野口雨情、 露出史光、 藤井淸水等諸氏가 指導하야 民謠演奏會를 開催한것이 最初이다。 一九二一年에 全國民謠大會가 東京에開催되엿다。 一九二五年에는 日本靑年會館開催記念으로 十月二十六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야 鄕土舞踊과 民謠가 公演되여 民謠界에 큰刺戟을주엇다。

此會는 其翌年第二回를 開催하야 其後는 每年年中行事로되엿다。 이事業은 農民을 그대로 演奏식혓는데 가장意義가잇고、 鄕土의 歷史的地位를 그의中心에 나타내며 큰貢獻이잇섯다。

其後 新聞社、團體等의 主催로 民謠의講座 硏究의發表會等을 얼마나 되는지 正確한 數字를 모를만하다。

이와가티 民謠의研究는 그機運이 偶然해지며 新民謠의 創作은 날로隆盛해오고 民謠研究創作雜誌는 더욱活躍하며 新民謠의 作家及 作曲家가 輩出한 努力을 다하야 文化向上에 貢獻하엿다。

其後 昭和三年三月二十四日에 日本民謠界에 活躍한 民謠詩人 民謠作曲家 舞踊家 民謠研究家等四十餘名(昭和四年에는 八十一名)을 綜合하야 日本民謠協會의 設立을 보게되엿고 民謠向上을 爲하야 每年民謠祭를 擧行하며 隨時로 講演 演奏等을 開催하기로 決議하야 東京市의 後援下에 그해가을에 東京의 第一回民謠祭를 日比谷新音樂堂에서 擧行하엿다 어리하야 民謠에對한理解가 各階에이르기까지 널리認識되여오고 잇는一方이다。

以上으로 至極히 簡略하나마 日本民謠運動의 大綱을 살펴보앗스나 實際의十分之一도 이곳에 紹介하지못하엿스나 멋는다。

對內的으로나 對外的으로나 多事多端하든 一九三五年도 저물어 一年間의 回顧와 새해의展望을 꿈우라하는 只今에 朝鮮日報 其他各新聞은 新春懸賞文藝作品을 募集하는 社告가 나와서『新人을 期待한다』하며 新人을待하야 큰期待를 表示하고잇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野心滿滿한 民謠詩人 民謠作曲家 民謠研究家가 多數히輩出하야 허러저가는 우리鄕土의 藝術을 爲하야 努力하이잇기를 至今부터 待望하야마지안는다 (完)

黑風 【205】

韓龍雲 作 金熊超 畫

문락(淪落) 1

광동의 혁명당부는 봉추에게서 백만원의 자금을 어든뒤로 활기를 띄어서 활발한 운동을 하얏다 사람이 사람이니만치 비밀도 정도문제요 시간문제엇다 적지아니한 단체로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활동을 계속하느니만치 혁명당의 정체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얏다 문명이 일반으로 보급되지 못하고 단체생활에 훈련되지못한 사람들의 모임 더구나 혁명단체가튼 비밀운동에는 만한 결함이 생기는것이오 또는 혁명당원이라고 낫낫이 진정한 애국지사는 못되는것이엇다 그러한 단체에는 돈이 업는것도 걱정이지마는 좀지에돈이 만히생기는것도 걱정이엇다 돈이업서서 걱정되는것은조흠하기나 하지마는 돈이만허서 걱정되는것은 추잡한 내용이잇는것이엇다 단체에 돈이잇는쌀을 알게되면 기밀비가 적다고도 뭐적거리고 여비가 부족하다고도 중얼거리고 생활비를달나고도 조르고 서로 엇지하든지 돈한눈이라도 더어더 먹으랴고 찟고 까불고 시기하고중상하고 하는것이 인류사회、더구나 국가나 사회입을 한다고 표방한 단체중에 잇는것은 비길수업는 수치가 되는것이다그러나 그런줄을 모르는바도 아니언만 왕왕 그러한 일이 생기는것은 그것이 이른바 떨치지 못하는 나라 사람의 일이라고밧게 할수가 업는것이엇다 청국의 혁명운동도 불행히 그러한 범위를 버서나지 못하얏든것이다

하로는 정보부장 원상희(情報部長 袁尙會)가 재무부에 나타나서 왕한에게 말을 하는대 자기는 본래 원세개의 일가로서 원세개의 아들 원극정(袁克定)이와 친한터이오 원극정의 소개로서 좌종당(左宗棠)의 네째아들 좌효동(左孝同)과 증국번(曾國藩)의 손자 중도형(曾道亨)을 잘 알게 되얏는대 그들은 본래 혁명사상을 품은 사람들로 현재 원극정은 상해에 잇고 좌효동과 중도형은 소주에 잇는대자기가 들며는 그들은 다 혁명당에 들어오게 할수가 잇고 그들이 들어오면 여러가지 방면으로 당세를 확장하고 운동이 유리하게 될터인대 그리하자면 기밀비 삼천원가량이 필요한속 그것을 지출하야 주는것이 어떠하냐고 하얏다

그말을 드른 왕한은 그들은 유력한 사람들이라 당원을 만드는것이 조흔일이나 그것은 당의 회의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될일이오 기밀비도 삼천원이나되는 거액에 달한다면 그것도 당의 명령이 아니면 지출할수가 업는일이오 또는 수렴되는 황흥이가 지금 즐다하야 업는중이죡 황흥이가 도라오거든 상의하야 하자고 대답하얏다

그러나 상희는 지금 공교한 련라관계의 기회가 잇서서 이번기회를 노치면 다시는 용이치 아니할것을 말하고 일이 진급하니만치 삼천원의 기밀쯤은 사후승락을 엇더라도 무방하다는것을 주장하고 또는 황흥이가 잇스면 무론 흔연히 승락하리라는것을 말하야서 하여간 삼천원이라는 돈이 그대지 만한돈도 아니오 급박한 기회에 비상한 성공을 하기 위하야는 구구한 규칙을 직힐것이업시 비상시출을 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을 강경히 주장하얏다

그러나 당의 규률로 보아서 상희의말이 여간 불가한것이 아니오 또는 당원으로 가입식히겟다는 그사람들이 원래 판로파 인물의 자질들로 용이히위험한 비밀운동에 참가할가 십호지 아니하고 또는 참가한다 호지 아니하얏다 그것은 두째문제로 하고라도 첫재로 당의 명령이 아니고는 기밀비를 지출할수가 업슬뿐만 아니라 그들을 입당식히는것 까지도 당의 결의가 아니고는 사사로히 찬성할수가 업나는뜻을 계속하야 말하얏다

어머님 아버지

子女들의 試驗으로 걱정이 더하겟지요

試驗 期가 迫到하엿습니다。 學期試驗이 끗나면 또 入學試驗입니다。 어느家庭에서나 어머니나 아버지自身이 受驗이나하는것처럼 工夫가不足하다。 너무논다는等 아조야단법석입니다。 그런

結果 重要한子女들의 身體와精力에의 注意는아조하지못하십니다。 그러면子女들은 더욱可憐하지 안습니가、 어른이라도 酷使한 걱정과 無理한머리를 使用한속 頭腦榮養이 不足하야서 몸이衰弱하여집니다。

特히 오래동안 無理한工夫를 계속하야온애들의 머리가 疲勞할 것도當然하니 속하려야가는 頭腦不足한燐、칼슘의 榮養素를 빨이 補給하는

唯一한 頭腦榮養劑로서、特히 試驗準備中인 子女들에 는업서서는 안될藥이니 못기실로록工夫를 勉勵하는것보다 一日一服이나 二服을 억하려야가 常服用 식혀주시는것이 子女들에게는 고마운 일입니다。

主效 머리의 榮養劑

頭痛、 腦病、 不眠症 神經衰弱、 히스테리 —머리 疲勞、 倦怠、 精氣、 憂鬱、 胃腸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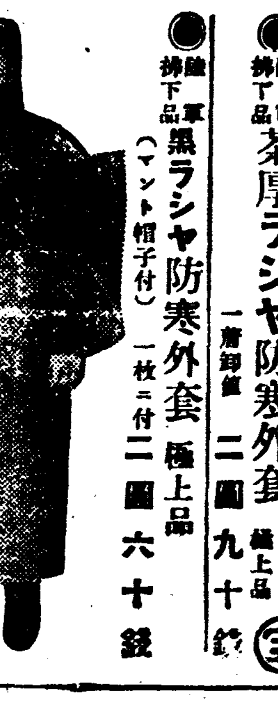
數多한 頭腦藥中에서 特히 醫學博士 諸方名의 認可를 엇고 있는것으로 하려야가 되는것이다。 이것에 代用할만한 藥은 업서도 된다。 ...

かやれは

(하 레 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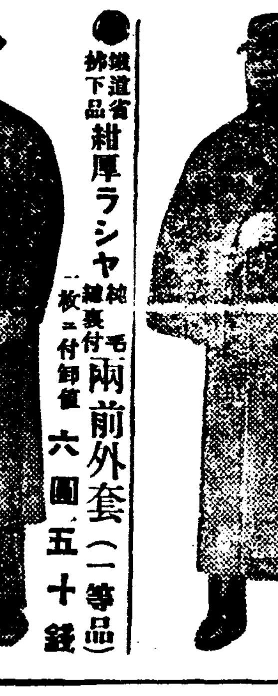
中古洋服類大安賣

◉陸軍拂下品 黑厚ラシヤ防寒外套 極上品 一着卸値 二圓九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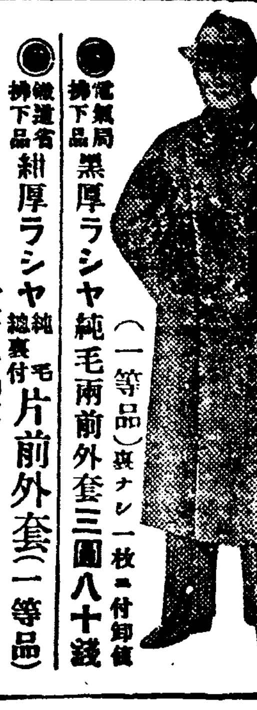


◉陸軍拂下品 茶厚ラシヤ防寒外套 極上品 一着卸値 二圓九十錢

◉陸軍拂下品 黑ラシヤ防寒外套 (マント帽子付) 極上品 一枚ニ付 二圓六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純毛兩前外套(一等品) 總裏付 一枚ニ付卸値 六圓五十錢



◉遞信局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兩前外套(一等品)裏ナシ 一枚ニ付卸値 三圓八十錢

◉鐵道省拂下品 紺厚ラシヤ純毛片前外套(一等品) 總裏付 一枚ニ付卸値 四圓二十錢

◉遞信省拂下品 黑厚ラシヤ純毛片前外套(一等品) (裏ナシ)一枚ニ付三圓十錢

◉鐵道省拂下品 紺ラシヤ詰襟服上下組(一等品) 一着卸値 三圓六十錢

◉遞信省拂下品 冬小倉服 上下組 紺色ネル裏付(一等品) 一着卸値 二圓十錢

中古品으로 新品同樣의 修理한 堅牢實用品

◉新品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 上品 一枚卸値 二圓八十錢

◉新品 純毛 將校ラシヤ乘馬ズボン 特品 一枚卸値 三圓八十錢

◉新品 黑紺 厚ラシヤ水兵型セーラーズボン (一等品) 一枚卸値 二圓五十錢

◉軍隊拂下改造編上靴 一足 A品二圓二十錢 B品一圓九十錢

本品은 東京陸軍拂下品을 上靴로 改造加工한 堅牢한 實用品

海軍拂下陸軍隊用 黑革編上靴 A品 二圓五十錢 B品 二圓十錢

注文은往復하시면一番이라도小包代引으로送品함

名古屋市東區淸水町局前 卸問屋 松山合名會社 電話東六二二九番·振替名古屋一一五二一番

書堂을積極後援 簡易學校도增設
平南의初等教育普及案

【平壤】평안남도에서는 도내의 문맹타파에 전력하기로되여 일면일교계획도 남도두개교로서 실일면도에 완성을보게되엿스므로 다시일면 이교계획을 하는모양이나 원체 경비문제로 보통학교확만으로는 진행키 곤난하여 간이학교(簡易學校)를 설치키로 되엿는데 소화팔년이래 지금까지에는 사십오교이나 명년도에는 매군일교식 십시교를 증설키로 되엿다

또한 도내에잇는 일천삼백의서당을 적극원조하여 『레벨』을향상시겨 문맹타파의긔능을 발휘키로 되엿다한다

城津邑內火災 九戶全燒

【城津】지난 십팔일 오전한시경에 성진읍본정 해안통 승전(勝田)씨 소유의가옥일동이 회재로인하야 반소되고 동세시경

廿川江善州橋 初渡式大盛況

【善山】경북선산읍(善山邑)은선산의 관문이요 경부선중앙지대귀미역에서 사리를 북으로드러가 적은 도회를 이루운청소재지로 모든긔관이 거이다 완비되여잇스나 항상그중로에 잇는감천강다리가 완전치 못하여입밧은 불편을늣기고 군당국에서다년간숙제로되여오든바 금번느진본년부터거액의 공사 비를드려오래동안공사를 진행하여오든중십팔일에준공됨을 따라 동일오후한시에선주교초도식을 거행하엿다고한다

宗中山을賣却하야 萬餘圓을橫領?
海州署、關係者를召喚取調中 殘金은宗中에서假差押

【海州】지난십오일 해주서(海州署)사법계에서는 해주읍 남본정(海州邑南本町)에서 해주관(海州館)이란간판을 걸고 음중옥리업을 경영 하는 안항길 (安恒吉)(四○)을 소환하야 횡령죄 (橫領罪)의 협의로 엄중한 취조를 진행하는일방 안모(安某)등수명을 소환하야 증인심문을 하고 돌려보낸후 물적증거를 수집코저 내사를 거듭하고 잇다는데 사건의 내용을 탐문한바에 의하면 전긔 안항길은 해주읍광석정산(海州邑廣石町山)십칠번지에 소재한 안씨 종중산 (安氏宗中山) 림야(林野)사정이반사묘를 자긔개인의명의로잇는것을긔회로 금년오월초순경 시내에거주하는 읍회의원원모(元某)에게 일천오백원에 일번저당을하야소비하고 금번칠월중순경에는 시내남본정(南本町)에거주하는김모(金某)에게천원에 이번저당을하야 소비해버리고 그도부족하엿든지 지난십이월이일경 동시내청년실업가 김모(金某)에게 일만일천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그중선금으로 오천여원을바든사실이 안씨종중에 발각되여 그종중의 결의에의하야횡령죄로 해주서에 고소(告訴)를 제긔하야 전긔와가티 경찰의 활동을 보게되엿다는바 매주(買主)김모로부터 잔금차금 륙천오백원은 안씨종중에서 가차압(假差押)을 하엿다한다

全關西庭球大會
一月十日을期하야開催 本報大阪支局後援

【大阪】재일본조선긔독교금강공려청년회(朝鮮基督教今宮共勵青年會)에서는 신정을 리용하야작년부터 하여나려오는 전관서정려청년축구정구대회(全關西蹴球庭球大會)를금년도례년대로 오는 일월십일에 수미노에 공원운동장(住之江公園)에서 제이회대회를 조선와이엠씨에이대판련합회(朝鮮YMCA大阪聯合會)와 조선일보사 대판지국(朝鮮日報社大阪支局)후원하에 최개한다는데 판서각지에 산재한 공려청년의 다수참가를 바라는동시본대회 정구우승팀에게는 본사대판지국륙제 우승긔를 수여하리라하며 참가규정과 대회역원은 다음과갓다한다

一、申請期限 昭和十一年一月四日

一、參加金 蹴球한팀一圓式

◇大會任員=會長韓廷洙 總務姜聲俊 審判部崔鳴豊 朴泰鎭 具寅善 石善姬 記錄部 姜昌浩 吳明涉 接待部吳明錫 李信實 姜定求 劉在文 姜聲國 設備部姜仁求 翁任得 方裕順 具寅會 石善珍 顧問 高麗鐘 金光洙

興南一帶에 又復毒感猖獗

【興南】홍남읍일원에는 저간천연두의창궐로 읍과경찰서에서 필사적 방역에노력하고 잇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제다시 긔온의급강으로 독감이성행하여 그로로고생하는이가 수백여명에 달한다고한다

雲谷夜學修業式

문맹을 퇴치하랴고 고심하던 경북봉화군 춘양면에서는 농한긔를 리용하야 가계부실시부락(家計簿實施部落)인 운곡농민(雲谷農民)들에게 가계부 (家計簿)에 긔장(記帳)할 능력을 주입시기기위하야 며주전부터 열성교수한결과 우수한성적으로 본월오일 수업식을 거행하엿다한다

妙齡美人縊死

【興南】 신흥읍 새벽제사경에 홍남읍북

常識講座開設 一切費用自擔

【安州】안주군동면 평률리(東面平栗里)는 산곡지대로 다른지방과가티 교육긔관이 빈약한데서 배움에굼주리는바 동리에거주하는 김채장(金采章)씨는 이것을 통탄히 여겨 지난십일일부터 농민상식강좌를 개최하고 일반농민의 강좌용품을전부 김씨가 자담하며 기타 서유대와 연료대까지 지출한다는데 동리농민 일반은 김씨의칭송이 놉다는바 씨는일즉이 대성학교(大成學校)교무주임으로다년간 교육계에 종사하면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대성학교를위하야 물질원조를 방지아니하엿다고한다

異次頓의死 【63】
李光洙 作 金奎澤 畫

이차돈은 소매에 매어달리는 반달을 뿌리칠수도 업섯다。그러나 이차돈은 이 반달을 어찌할바를 몰랐다。비록 마음으로는 달님을 이 세상에 가장 그리운 사람으로 생각하면서도 반달에게 한달님어 들인 정도 길혓다。반달은 지극히 이차돈을 사랑하고 아꼇다。

그러치마는 이 반달을 장차 어찌할것인고? 내일 어찌 될지 모레 어찌 될지 모르는 제 목숨이아니냐。이차돈은 저로해서 불행하게 된 세 여자를 생각하엿다 ─달님과 평양공주와 반달과。그리고 늙으신 한아버님과 어머님과。

『무엇하러 내가 세상에 낫스며、무슨 까닭으로 이러케 압길이 탁 막히는고?』

이차돈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소매에 매어달려서 울고잇는 반달을 굽어보앗다。

『반달!』

하고 이차돈은 그제서야 자리에 안즈면서 반달을 겻헤 안치고 불럿다。

『예?』

하고반달은 눈물 어린 눈으로 이차돈을 바라보앗다。

『반달! 너와 나와의 인연은 잠시잠시간이다。』 마치 흘려가는 별과 가티 저긔 잇다 하면 벌서 업서지는 인연이다。』

『웨요?』

『오。내 목숨이 내일 죽을찌 모레 죽을찌 모르는 목숨이야 나를 죽이랴는 사람이 내일이나 모레나 이 평양에 나타날 것이다。벌서 평양에 들어와서 나를 엿보고잇슬는지도 몰라。나는그런 사람이란 말이다。』

『무슨 일로?』

『무슨 일인것은 네가 알배아니오!』

『그러키로 서방님 재조를 누가 당하리라고。』

『흥』

『그나 그뿐인가。메주한가가 잇는데 누가 서방님을 건드려요?』

『메주한가의 말을 내가 들엇스면 이 액을 면할수도 잇겟지마는、내가 그의 말을 안 들엇스니까 온몸부터는 메주한가도 나를 미워할것이다。』

『메주한가가 무슨 말슴을 서방님께 하엿는데 서방님께서 안 들으셧서요?』

『그것은 네가 알바가 아니고 ─』

『무어。내가 다 알아요。메주한가의 딸 버들아기가 서방님을 메번 뵈옵고는 서방님이 그리워서 병이 들어 누엇다고、서방님께 시집을 안가면 찰하리 굶어죽는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엇다고。메주한가집 한나라사람 종이 그려테라고 이몸의 서모헌테서 다 들엇는걸요』

이차돈은 처음 듯는 이 말에 속으로 놀랏스나 그런 빗츤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런것은 나는 모르는 말이공。』

『모르신리가 잇서요? 그것을 모르시면 무엇하러 날마다 메주한가의 집에를 가셔서는 다 늣게야 돌아오셔요?』

『그보다 더 난처한 일이 잇지。』

『무슨 일이오?』

『그것은 네 알 배 아니고。』

『그것도 이 몸이 다 알아요 말슴은 아니하시더라도 이 몸이 다 알어요』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서방님께서 신라를 배반하시고 고구려ㅅ벼슬을 하시게되다는 말이 짜아한데요』

『무엇이?』

『서방님께서 고구려에서 놉흔 벼슬을 하여서 신라를 치신다고─신라에 대한 원수를 갑흐신다고』

『무엇? 너 그런 소리를 어듸서 누구헌테 들엇니?』

하고 이차돈은 반달의 어깨를 붓든다。

『다 알아요』

『어듸서 들엇서? 응。그런 말을 어듸서 들엇느냐 말이다。바로 말해라』

하고 이차돈은 무서운눈으로 반달을 노려보앗다。

반달은 무서운드시 몸을 뒤로 굽며、

『남들이 그러는 말을 들엇서요。이몸은 아모죄도업소。』

하고 애원하는드시 이차돈을바라본다。

こんな懸賞もらひ貴方が御愛用のマスターの空函で皆當る絶好のチヤンス

大懸賞 愈々は15日メ切り

懸賞課題

栗島すみ子、水の江瀧子、田中絹代의 三大스타ー中 어느한분이나 愛用하고게신 化粧品의이름을 一個以上을 左記規定에依하야答하여주시오。

賞品

特賞 여호ㅡ도리 三十名 (絹代의「永久의愛」에出演衣裳)
A賞 西陣お召 五十名 (栗島考案支那更紗製)
B賞 핸드백 五十名 (다ー키ー愛用)
C賞 純銀반지 百名
D賞 美術粉白粉容器 二千名 (다ー키ー傑作)
E賞 寫眞集알범 千名
F賞 레뷰映畵스타ー自敍傳

申込規定

▲答案用紙 마스타ー香粧品定價卅錢以上分사신후에 그空函의裏面에答과住所氏名及朝鮮日報名을記入하야주십시요(郵稅는、空函一枚마다上下端을切取後三錢切手를封套에貼付하여주십시요)
▲發表 昭和十一年二月號 本紙上及婦人雜誌
▲賞品發送 一月中旬(C・D・E・F賞에當籤되신분은賞品發送으로서發表에代身합니다)
▲送處 京城府太平通一ノ六一 朝鮮日報社廣告部內尙美堂懸賞係
▲締切 一月十五日消印까지有効

栗島すみ子 살바탕부터美白하게먹어서 化粧이 오래가고조흔마스타ー粉白粉은美의天使
水の瀧江子 나는斷然조와요… 마스타ー홈피드의香氣가!
田中絹代 얼부러한것갓지안어美白하게먹음으로나는 마스타ー水白粉을못잇겟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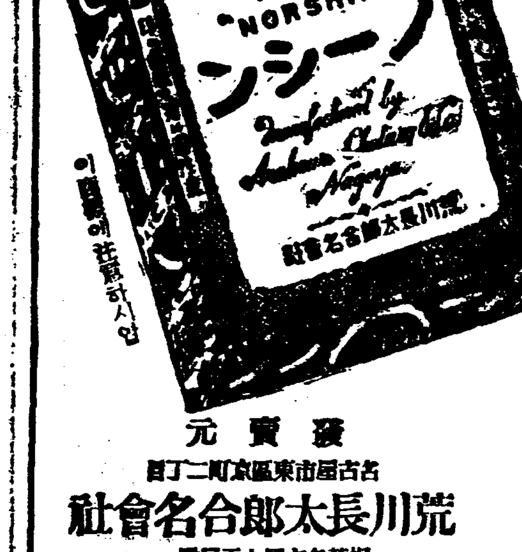
マスタークリーム バニシング
마스타ー크림 바니싱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ノーシン 노ー신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흐릿할때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
좃치못할때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슬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하시드래도
머리가아수明快해집니다
이藥은全國賣藥商店에잇슴니다 各賣藥房에도무려보십시오

머리가몸시압흘때……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치쑤실때……노ー신
간간히변두리를압을때……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二包入	五十錢
三十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無資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皮膚病花柳病專門 醫學博士 吳元錫
黃金町네거리・電車停留場前(電光二一三一番)
入院隨意 診察 午前九時 午後八時

虫齒를防止 白色强健케하는此齒磨粉

齒香仁丹 本舖 森下博營業所

압흔痔에는 오세로 オセロ 痔疾藥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소

腦炎 流感 熱病 마라리야의 卓効治療藥

기나뽄 (キナポン)

急性의熱이놉흔病은 거의다 病原菌이傳染하야 일어나는것이므로感氣들엇슬적과가튼 解熱劑만 먹어서는 낫지안흐니 그病原菌을 죽이지 안하서는 안된다

이기나뽄은마라리아菌을죽이는키니ー네를가지고만든것으로 肺炎과流感又高熱을내는黴菌을滅亡케하고그러고一方으로는直接으로 熱을내려서 人體가 天然으로가지고잇는病을이기는힘을 强하게하는것이다 故로 이러한 種類의病에는 아모것도다ㄱ고기나뽄을 注射하지안흐면안된다 多數한 醫學大家가 實驗하야 此等疾病에効果가 絶對함을 證明하신바이다 그主되는先生님네는

石田博士、鹿沼博士、緖方博士 師博士等으로 大槪二三回의注射로熱은내려버린다고하셧다。

用法 大人은一回에一筒(二瓦랍)씩筋肉、皮下、又는靜脈內에注射한다 每日一回로足함 小兒에게는 小兒用이잇슨즉 그것을使用해야한다 大人用을쓰면안된다

注意 寒冷時에는藥이結晶하는수가잇다 좀뜻뜻이데우면 透明해질것이니 데워쓸것이다

左에揭出한病에는 모다잘奏効한다
肺炎、流感、마라리아、膓窒扶斯、猩紅熱、扁桃腺炎
產褥熱、熱病
臨產하야 陣痛이弱한때에 注射하면 强해저서分娩이 順히된다

種類
大人用 十本入 一圓五十錢
五十本入 六圓二十錢
小兒用 五本入 八十錢
五十本入 五圓
이잇다 有名한藥店에서팔거니와 品切될때에는 直接本舖에前金으로 注文하십시오

發賣元 株式會社 田邊五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三丁目

特約店
京城本町一丁目 山岸藥店
同 二丁目 古城藥店
同 同 北島藥店
同 三丁目 阿部皓藥店
同 四丁目 森川回天堂藥店
同 南大門通二 木村直三郎藥店
同 明治町二丁目 新井藥房
釜山府本町 坂井峰太郎藥店
同 辨天町 大矢靑松藥店
同 同 大黑南海堂藥店
同 富平町三丁目 藤田伊三郎藥店
馬山府都町 ヤマノ降雲堂 石見屋藥局
平壤府大和町 菊名千壽堂藥店
同 同 森田草藥堂藥店
同 南門通り 日新堂藥房
木浦大和町 木下凉藥店
木浦福山町 伊藤駒太郎藥店
大邱府大和町一 佐伯仁正堂藥店
同 元町 町田回春堂
全羅南道光州北門 木下忠藥店
全羅北道全州本町 田島宇蘇藥店
元山府本町二丁目 石田濟生堂藥店
淸津明治町 山野降雲堂支店
羅南生駒町 稻垣日本堂
元山旭町 伊藤藥店

開館 若草映畵劇場

오래동안愛護하여주시던大正館은 十二月十六日限하야閉館하엿읍니다 여러분의絶大한 愛顧에報答코자 設備와시설을자랑하는 若草映畵劇場 아조近日開館합니다 京城에서 처음인 新樣式大映畵劇場이것은 興行者의 映畵劇場이안니라여러분의若草映畵劇場입니다 期待를願합니다 大都映畵와優秀洋畵의 封切場으로서 新春의프로그램은此발表합니다。

若草大通り

來る廿日特別名畵祭
階下席廿錢均一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婦人俱樂部連載
新潮社發行小說
女の友情 全篇五卷
原作 吉屋信子
監督 村田實
志賀暁子 伏見直江 江川など
子 中野英治
婦人俱樂部百萬の讀者絶讚の問題篇再度諸彥の御希望に依り大公開
新興キネマ京都撮影所超特作
大阪朝日新聞連載
おせん 全篇
原作 邦枝完二
考證 少府雪岱
監督 石田民三
撮影 三木茂
出演 市川春代 市川小太郎主演 … 松本泰輔 松尾文人 小宮一晃 助演
中央館 永樂町 電本局二

今年經濟界回顧와 明年大勢打診 ⑥

紡績

今年의紡績界를 回顧하야 그中心問題를 차저보면 要컨대 生産過剩에 對한 鮮遺에잇섯다 卽內外需要가 이미 往年의 勢가 업슴을 不拘하고 有力한 紡績會社의 增錘는 조곰도 緩함이 업시 繼續하야 進行되엇슴으로 結局需給의 均衡을 保持함에는 高率의操短擴張을 안할수가 업섯다 今年中 行한 操短擴張은 前後四回 그擴張率이 合計一割五分의 高度이엇다 이런高率擴張을 한反面에는 各社의增錘가되야 紡績聯合會加盟大會社의 今年度增錘數가 約百十二萬錘의 多數에 達하고 이것을 前年의그것에 比較하면 一割二分의 增錘가 되야 全國紡績會社의 總錘數는 이미千萬錘를 突破하는 記錄을 出現케되엇다 그各社의 增錘와高率操短의 矛盾은 亦是 今年紡績界의 宿題로되야 九月의 紡績操短委員會는 이新錘에對한制限을 設하고 新錘를 二種으로 區分하야 七年十一月以後 十年三月卅一日까지 運轉을 開始한것을 第一新錘로 하고 第二 新錘에對한 制限의 條件을 嚴케하엿슴으로 十月、十一月의增錘는 特히 顯著케 되엇다

×

그러나 綿絲布의 需給關係는 이러生産設備의 急速한擴張이 잇슴을 不拘하고 高率의操短實効와 惡化가 豫想되든綿布의海外輸出이 多少伸長케되엇슴으로 顯著한 破綻을 暴露함에 안일으럿다 卽 七、八月頃에는 綿絲布의 市場在庫는 한때 十七萬梱을 突破한다는 新記錄을 보엿스나 九月로부터 二分二厘의 操短率이加重된結果 十月 末에는 十二萬七千梱、十一月 末에는 十二萬三千梱으로 各激減케 되엇다 그 反面에 今年의 綿布輸出狀況은 依然 海外市場의 關稅障壁은 緩和되지못하고 다시 埃及의 通商條約廢棄에 依한 關稅引上問題에 依하야 日埃會商이 開始케되엇스나 이日英問題로 豫想外人도잇서 七八月以後各月二億二、三千萬碼를 輸出이 되야 結局 今年度의 綿布輸出記錄을 나타내엇는데 廿七億碼로하면 前年에比하야 六分七厘의 增加이다 이實績에 徵하면 今年의 紡績界는 內로 生産過剩의 操短을 海外로 向하야는 一層前進을 하엿든것이다

×

그러면 압흐로의 推移가 어떠할가 하면 紡績界는 明年度에 잇서서 亦是 繼續하야 新錘와 生産過剩對策의 問題로 苦惱치안흘수업는것은 明白하다 卽 明年度는 今年度와가튼 一割二分의 高度增錘는 업슬것이나 各社의 旣定增錘計畫으로 보드래도 압흐로의 二個年가량은 이增錘는 進行할 傾向에잇다 또 一面 需要의方面은 어떠하냐고 하면 이것을 對內的 需要는 綿布、絹布의 需要者인 農村의 景氣가 米價高、繭價의 昂騰이 이 잇스나 人絹의 威脅이 잇서 數年以來 綿布의 國內需要가 全然 頓挫되엇슴을 보아서 農村의 景氣가 多少伸長되드래도 結局綿業上에 잇치는好影響은 매우輕微하다고 잇다 또 海外市場의 狀況으로도 進行中의 日埃商會도到底히好結果를 밟아기 어렵고 또英印의 條約도 明年에 更新될것인데 이亦 現行의 四割以上으로될 可望이어렵다 그러고 近東亞弗利加市場까지도 日本品制限의 空氣가 보히며 또 中南米와 中國市場에도 큰 期待를 가질수업는 實情알에 잇는以上 明年度綿製品의 輸出도 予先現狀維持로 보는것이至當하야 今年度보다 以上의躍進을 豫期함은 無理이다

朝鮮米輸送에 鐵道省運賃差別

殖産局의改正要望에不應態度 總督府는反駁決意

今年九月의 鐵道省貨物輸送規程改正에잇서서 鐵道省에서는 朝鮮米輸送에 實情無視의差別待遇를 實施하고잇다 그래서 이에對하야 總督府殖産局에서 斷乎히그不合理是正의要望이 잇섯다 그러나 이에對하야 鐵道省에서는 다음과가튼 回避的答辯이 왓다는

一、從前六十三瓩의決定은 日本內地米에準하야 當時朝鮮米輸送이 마지안흠으로 暫定的採用한것으로 實重量에應하야 卽 一叺十六瓩으로 決定한理由는 徵收키로되엇다

二、朝鮮鐵道局의 輸送規程에依한숫 六十六키로로되고 이것과步調를 合한것이라

는二項을 드럿다 朝鮮米의 日本內地에比하야 輕量인것은 堂島取引所의 皆掛重量平均이 日本內地米 六七、三一六瓩 朝鮮米 六七、三〇一瓩 으로되야 朝鮮의總量이었은 明白하야 이런差別待遇의 根據가 업는것이 確實함으로 朝鮮總督府로서는 다시 이것을反駁키로되엇다한다

米國政府는 依然銀買入

買入場所言明難 ▲…財務長官言明內容

【華盛頓十九日發聯合】世界銀市場의 近來動搖에 對하야 가장 注目되는것은 米國政府의 態度인데 모겐소財務長官은 十九日新聞記者團과의 會見에서 지난 十六日에 말한것과 가티米國政府는繼續하야 銀을사고잇슴을 밝히고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財務省은 今週도 繼續하야 銀을 사고 二十日도 亦是삿다 어느곳에서 삿느냐고함은 言明할수가 업스나 그산곳이 매우만허서 諸君은드르면 놀내일것이다

뉴욕銀塊價續落

五十三仙四分三發表

【紐育十九日發聯合】倫敦現場公定市勢는 繼續하야 十六分十三片이 低落하야 世界銀塊市勢의 軟勢가 不規하고 한데 하마商會는 建値를 前日보다 다시二仙을내려서 五十三仙四分三으로 發表하엿는데 이것은 今年二月六日以來의低價이다 月以來의 低價로 止場하엿다 一方 票金相場은 急奔騰을告하야 中國銀令布告以來의 大紹進으로 一擧 百七十二元에 止場하엿다 이는 前日止價에 比하야 一擧 二十五元의 大幅奔騰이다 그리고 今日의爲替市場은 市況은 相當히 活潑하야 賣買 前後場을 通하야 對英五十萬磅 對日百萬圓 對米二十萬弗의 多額에 達하엿다

倫敦市場休會

每週土曜日에

【倫敦十九日發聯合】最近銀塊取引은매우 異常을呈한 事實에鑑하야 倫敦銀塊仲買商은追後通告가잇기까지 每土曜日銀塊市場을 休止키로決定하엿다고한다

上海銀價大暴落

標金은奔騰

【上海十九日發聯合】海外銀低로大氣迷中인 上海爲替票金市場은 十九日後場에 들어가는同時에 爲替安票金高로 氣配가高騰하야 對英一志二片 三十二分十一로 前日止價에 比하야 十六分之一低를 示하엿다 對日百三一圓四分一對米二十九弗十六分七로 모다一九三三年入

株界一年 (2)

五月을 頂點으로하고 爾後軟調를 取한株式은 六月에入하야도 人氣更新되지안코 東新이 六月十二日의 百四十二圓에서 十九日에는 百三十二圓으로 下降되고 八月中旬에至키까지 低迷商狀을 繼續하얏스나 貿易의好調、生絲、米穀高에依한 農村의潤化、重要商品과 物價의 漸騰에 依하야 生産過剩念慮가 一掃되엇고 金緩低利의 永續豫想과 金利의平準化、明年度豫算의 膨脹과 非增稅豫想、米國景氣의恢復等好材料로 底入觀擡頭와共히 投資側의 買出動을 促하야 軍需工業、砂糖、科肥、人絹株等 漸騰商狀을 呈하던際에 伊太利對에디오피아의 紛爭은 九月에入하야 去益險惡化하고、戰爭不可避의 情勢이엇스므로 船舶株를 先驅로하야 諸株 一齊强調를 呈하얏다。그리고 伊에紛爭을圍繞코 英、佛、伊 三國의 外交가 緊張됨에 從하야 船舶株、洋灰株、人絹株等의 著騰을 促하고 十一月에 入하야 北中自治工作運動好感을 織入하야 買氣熾烈하얏스며 下旬 東新은 百七十七圓으로奔騰되엇다。

×

이와가티 經濟界 實勢의 再檢討를 基底로하고 伊에紛爭과 日中關係의 二大材料에依하야 市況은 六月中旬以後上向의姿勢를取하야 東新은四十四圓、朝新은六圓의 各大幅飛騰이엇섯다。이제 이것을月別로 細觀하면 如左하다。

×

六月上旬은 商品界의 不勢와 海外財界의 不透明으로 諸株低落、中旬은 日銀新總裁의榮觀說、生保證券會社成立豫想으로 多少强調이엇스나 當所株上場禁止問題、增稅念慮等으로 再次落潮이고 二十九日大阪地方水害로 人氣沈衰하야 紡績人絹、軍需工業株에對한 賣人氣가 軍하얏스며七月에入하야도 市況이恢復되지안코 特히日本産業系統의株式은 資本膨脹에 依하야 悲觀人氣集中하야 低落하얏스나 中旬에三菱鑛業과 東新의 反擊言機로하야 下遊모양을示한 市況은 全面的으로 活況을 帶하얏지만 高價警戒觀重이엇고 米國의加工稅 賦課念慮로 紡績人絹株의 崩落이他方 日中貿易의 好轉、米國市況良好、貿易出超等의 好感으로 軍需工業株를中心으로서 反撥하는等 諸株의 高低區區、軌를不一히하얏다

×

八月에入하야 生絲好勢로 工業株를 中心으로 昂騰하고 買氣循環、人絹、炭鑛、紡績株等은 賣方의踏物로 一齊昂騰하야 東京電燈과如하얏은 만에 顯面復活、人絹、曹達、肥料、洋灰株等이 順次利乘하는高를示하고 市況活潑이잇스며 探算物色買로 市況이 顯著히 硬化되엇고 下旬에 日中關係의好轉 藏相의非增稅聲明、米棉融資額引下에伴한棉花、棉絲의激落等 好惡材料 交錯하야 波瀾을거듭하얏다。

九月에入하야 伊에紛爭은 擴大의兆가잇서 船舶株를中心으로 軍需工業株 一齊昂騰을 告하고 更히旺盛한 物色買人氣는 上旬貿易大出超에 拍車를加하야 人絹、砂糖、紡績、東新等은 俄然奔騰하고 이것을契機로 炭鑛、軍需工業株는 活況을呈하얏고 十六日伊國의態度 强硬으로 和協委員會의 不調를듯고 開戰不可避의 念慮濃厚케되어 東新은賣方踏物과 新規買의出로人氣去益高調하야 近年稀有의 白熱的場面을 出現하야 百六十四圓으로 昨年春以來의 高價를 示現하얏스며 賣買高도 五萬株를 突破하야 開所以來의 新記錄이엇섯다。

×

그리고 伊에紛爭의 形勢를 注視코 波瀾을 거듭하얏스나 一方國內的으로는 國體明徵問題를 周續코 政局念慮擡頭하고 取調高激增에 玉整理를强要하얏지만 物價高、貿易好調 海外市況의 良好로 押目買人氣潛在하야 十月에入하야 貿易出超伊軍의 에디오피아 國境突破로東新은 百六十五圓八十錢으로過般의 高價를 上廻하얏섯스나 歐洲政局前途難測으로 利喰賣物이나와 七日 아도와陷落과共히 戰爭市勢一巡의 感이잇서 東新은 九圓의反落을示하얏다

×

그런데 生絲의 踊騰農産物의 騰貴 物價高의 趨勢는去益顯著한 一方輸出貿易은 好調를 持續코 日中關係의 好化、事業會社의 好況等으로 玉整理의 進捗과 共히再次騰勢로 轉하야 生絲의 一千圓市勢示現과 新의 拂込徵收豫想等에 依한 昂騰等으로 市勢强硬하얏다。(계속)

自作農創定資金 各道에全部配定

金利四分二厘程度

昭和十年以後 同十一年에 亘한 金融組合의 自作農創定資金 百二萬圓의 各道配定額은 二十日附總督府財務局으로부터 各道知事에게 通牒한바 聯合會로 부터貸出한 金利는 四分二厘 各金組에서는 그貸費程度의 利補를 附하야 可及的低利로서 創定農家에 貸出하기로되엇다한다 貸出方針은 各組合에서 放慢한貸出을避하고 實績을들 可能性이잇는 組合을 選定하야 優良組合에 集中主義를 取하리라한다 그러고 今回의 四分二厘金利는 聯合會로서는 劃期的低利에서 金融債券發行에 依한 資金의 直接取入의 途가열린效果이며 一面地價昂騰에 依한 創定農家의 負償을 低金利에依하야 輕減하야 償還을 容易하게하는것이라 한다

▲北鐵公債發行

【東京電話聯合】滿洲國에서는 이번 다음과가튼 要項에 依하야 北滿鐵道公債總額 一億八千萬圓中 第三回分 三千萬圓(日本通貨)을 發行키로되엇다

一、利率=年四分
一、發行價格=九十七圓五十錢
一、期限=十個年(但三個年、据置每年十五萬圓以上償還)
一、擔保=北滿鐵道財産及收入一切
一、申込期間=昭和十一年一月十六日로부터 同十八日까지
一、拂込期限=昭和十一年二月五日

米資配定을決定

金組聯合會만減少

昭和十年度米穀應急低利資金三千萬圓의 各金融業者配定은 最近決定되야 東拓은 十九日 受入하고 殖銀金組는 卄日 受入할터인데 그配定은 다음과가다 (單位萬圓)

		比前年增減
東拓	六二〇	二五增
殖銀	二二七〇	五增
金組	四四〇	四〇減
鮮銀	六七〇	一〇減

中旬對外貿易

入超千四百萬圓

【東京電話聯通】大藏省發表에依하면 十二月中旬 對外貿易概算調査는 다음과갓다 (單位千圓)

輸出	七〇、五二一
輸入	八五、二二三
合計	一五五、九二五
入超	一四、五二一
一月以後入超累計	一〇、三九九

公定米價 價幅擴大

廿日閣僚質問

【東京電話聯合】廿日의閣議에서 米穀公定標準價格에對하야 各閣僚로부터 今回公定된 米穀最高價格最低價格은 値幅이 너무擴大되엇다고 생각하는바 이것은 어떠한 理由에基한것이냐 는質問이잇섯슴에 對하야 山崎農相은 規定에 基한 것은 別로 値幅을 廣케한것이아니라고 說明하엿다

外米의輸入

◇…農林省單獨承認에서 各地協調方針으로

外米의輸入은 旣報와 가티 水稻原料로 遷續米를 日本內地에 一萬石讓受를 決定한바 日折衝에際하야 朝鮮總督府에서는 農林省과 協議한結果 從來外米의輸入은 日本內地의承認을要하고 日本內地의輸入은 農林省의 自由로되야 協調의 必要가잇고 日本內地에서 輸入決定에는 外地側의諒解를 求하라고要望하야 農林省도 이點을 諒解하고 今後의外米輸入은 內外地協調알에 나아가기로되엇다

米日爲替少高

【紐育十九日發聯合】十九日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賣二十八弗 八十仙으로 一仙高 買二十八弗 七十七仙으로 一仙高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工場來月入札=北鮮製紙吉州工場은 來年一月下旬이나 二月上旬에 入札에附하야 解氷後 着工하야 機械는 七、八、九三個月間에 備付하고 十二月中 工場完成豫定인바 建設費六百萬圓이라고

○朝運、麗港運輸倂呑=朝鮮運送은 今回麗水港 麗港運輸(資本金十萬圓二分一拂込)株式七割을 肩替하야 資本的으로同社를 倂呑키로된結果 麗港運輸社長에는 河合治三郞氏取締役에 增田平八 高瀨勝郞兩氏가 入케되엇다고

貿易은大改善

好材依然無響

中間의貿易은 入超一千四百五十二萬圓으로 一月以降累計 計算은 入超一千三百三十九萬圓으로되엇다。그럼으로남어지 年內一旬의 貿易을 合算한드래도 結局에 잇서 今年의總決算은 入超三千萬圓內外에 止할形勢이즉 大正八年以來보지 못하던 現象으로 日本貿易史上空前의 黃金時代라하고 이것이 株界의 前途樂觀에 拍車를加케될것으로 보이나 後場寄付는 依然不變이엇다

商況 (二十日)

株式 依然不變 閑散

前場强保 今前場은 綿絲二百圓臺恢復을비롯하야 棉花、人絹、生絲等一齊反戾로 諸株堅强이엇스나 卽昨後引에比하야 東新四十錢高인 百七十三圓丁 日産十錢高인 七十一圓七十錢 鐘新二十錢低인 百五十九圓七十錢 朝新二十錢高인 三十圓九十錢에 各大引되고 大新九十錢이오 七圓九十錢으로 東京電燈五十九圓二錢이엇섯다。

後場不變 後場은 東新百七十二圓九十錢 日産七十一圓五十錢 大新九十七圓九十錢 鐘新百五十九圓六十錢 朝新三十圓九十錢에不變寄付後 閑散保合裡大引

年內無市勢?

新春活躍期待

大勢樂觀으로 買上한뒤이라 取組整理는 不充分하고 鄕統會議와 伊에戰爭或은 北中情勢又는 政況財況이 顯著한 變化를期待키難하야 樂觀人氣의 發展이阻止되고 氣賣한 氣分이되어 急激한人氣變動을 바라기 어려운 때문에 年內無市勢觀이 適中되어가는모양이다 이러케되고보니 買方의煽場이나 弱勢의 賣崩이 共히 奏効키어려워 人爲的保合이 難望인 情勢이다 그러나 攀成的賣喜으로 越年하면 來春의 市勢는豫想外의 活躍을 示할지도모르는바 그根據는 如左하다 今日의 大勢樂觀이란것은 一朝一夕의 일이아니오 日本의 世界的地位向上과 過去三個年에 培養된財界實力의 增大에다가 東株整理 終了等根本的 事情改善으로 徐徐히恢復되것인즉 一日休養後는 當然活躍을 期할수잇다는것이다

東株理事決定

理事長은杉野喜精氏

【東京電話聯通】東株後任理事詮衡은 杉野喜精氏가 關男과 折衝中이든바 詮衡을 終了하야十九日商工當局의 諒解를 得하고 左記와 가티 決定하고二十三日株主總會에 附議承認을求키로되엇다

▲理事長 杉野喜精(新任)
▲常務理事 大串三夫(留任) 森諒一(新任)
▲理事 松本幹右衛門(留任) 南波禮吉(留任) 望月軍四郞(留任) 藤山愛一郞(新任)
▲常任監査役 齋部兵助(留任)
▲監査役 久保田四郞(留任) 齋藤之助(留任)

大新悲觀理由

長短合倂難色

長短取引合倂內認可以來 高價飛付이엇던 大新은 五人組의賣崩로 百圓關門割後 九十七、八圓臺에 不勢인바 大新失望賣의 理由는 如左하다 한다。

大新長短期合倂에 對한 主務省의 條件은 長期取引員에 對한 侵害料切下、委託者保護로 積立金制度創設、證券取引員의 資産保證等 嚴重한 條件이므로 合倂에 多大한 困難이 잇스리라하야 百圓割의 逆往文으로 百圓이 깨어지고 大新悲觀人氣로된것이라 한다

東新의强氣觀

天井아닌證據

東新의 大取組整理의 當然一押이期待되나 百七十圓割을暫現코는 百七十二、三圓에서高價保合이繼續되는바 年內無市勢論에맛는다할지라도新春高期待에는 萬人共鳴으로서 東新의 前途에는 樂觀的모양인데 이제東新이天井이아니라는證據를 如左히말하는사람이잇섯다。

市勢法則에는 天井三日、底百日이란말이잇다。그런데東新은 七十八圓(東京)이天井이엇슬것 가트면 이러케오래두고 百七十圓의高價에서 揉合할理 萬無하고 벌서百六十圓以下로떠러젓슬게아닌것을 證하는것으로서 반드시 東京東新四十三、四萬株의 取組만 悲觀할것이아니다 云云

今日財界 (二十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六五	四低
大阪期米 先限	三三三	七低
三等米 一石	[illegible]	二〇高
正租(仁川) 上	[illegible]	[illegible]
一斤價 下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利	一匁貸	一匁借
銀金	十二圓十五錢	十二圓六十五錢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實	[illegible]	二高
東新	一七三〇〇	不變
日產	七一二〇	三低
◆綿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illegible]	一四〇高
大阪棉化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現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取引高一六〇)

▲日産新一〇〇 ▲朝鮮石油二〇 ▲同新二〇 ▲朝鮮四新二〇 ▲米倉新一〇〇 ▲朝鮮信託三〇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聯通】買方의 金融樂觀으로 齊買偏되어 甲五分利以下 一、二十錢 佛貨도二十錢 五分半一圓二十錢 米貨六分半 一圓二十錢高로 又復新高價에躍進되엇다

甲五分利 一〇五、二五
佛貨四分利 一八六、〇〇

期米 强調이나 伸惱

前場突返 昨後場阪地三十一圓二十錢止와 共히 二十八圓九十九錢에 場을 止한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四錢인 四丁高를 據하고 二十九圓丁인 亦一丁高로 場을始한後阪地十六錢까지 小强하엿다가 十九錢에 止場함을作하야 八圓九十錢까지 下押하엿다가 結局九十七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强調 後場은 二十八圓九十六錢에 一丁低로 結後二節九十一錢을 低價로 四節九十八錢에 强調이고 五節九十六錢으로 九十五錢에 止場하다

結局은買上?

年內에實行說

政府가 發表한 買上保留는 季節買上을 아니한다는것을 意味한것이오、實際를意味한것이아니라하야 一兩日乃至一週日以內에 百萬石을 買上한다는說이 濃厚하야 阪地二十餘丁의 反撥을비롯하야 各地共히 一齊小高를示함에 至하엿다 今回買上云云의 條件은 三百二十餘萬石의 季節的買上이 아니고 旣히百七十萬石을 拂下한그代身에 百七十萬石을 買上하지안흘수업다는 米穀委員會의 諒解가잇서 爲先百萬石만을 買上하기로 되엿다고 한다 此는 農林省의 正式發表가 아님으로 信用할수업스나市勢에는 旣히 行動을 一巡하엿슬뿐아니라 場面은 짐짓 政府의 發表가 아님에도 不拘하고 依然 高價를 支持하고잇다 果然現下米穀情勢에 鑑하야 買上을 實施할必要가업다고 旣히 言明까지한 政府가 發表한지 三四日이지나지못한 今日에아무리 買替라할지라도 百萬石이나 買上하다고 發表할理는 업슬것갓다 政府의 態度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當限一代記

步幅은二百餘丁

去十月一日에 一丁上鞘로發會된十二月限은 今前場으로서 最終納會를 告하게되엿다 此當限一代의 戰跡을回顧하면 發會後卽時에 二十九圓七十錢인 第二天井을내고 因而低落途程에入하엿는데 그原因은 日本內地米作第一回豫想이 發表되기前에는五千八、九百萬石으로 豫測하엿든바 結局實際의 發表가六千五十萬石이나됨에따야 市勢는 急轉低落으로 二十七圓四十五錢의 低價를 示하엿섯다 그러나 其後 十一月初旬에 入하야는 第一回豫想發表가 五千七百五萬石인 例外의大減收를 告함에 딸아、反히八圓臺로 昂騰하야 四、五十丁範圍에서 往來하다가 當限時代에入하야 二十八圓六十一錢의 高價를示하고 結局六十錢에納會되엿다

當限總解合

空受渡로終幕

朝取期米當限受渡高는 總解合으로 空受渡이엿다 갑은 二十八圓五十錢이다

各地當限受渡

	石數	價格
釜山	五〇〇	二八五〇
木浦	二五〇〇	二八四〇
下關	三〇〇〇	三〇四〇

各地正米

京城强含 繼續하야 市場氣勢不昂이나 買上說濃厚로 氣配十錢高唱인 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五錢 四等二十八圓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仁川引締 定期의 恢復步調와 正租의 頑强維持로 人氣强하야 氣配十錢引返인丸仁三等二十八圓四十五錢四等二十八圓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釜山硬化 産地는 買上必須인데다가 定期의好調와 相俟하야賣腰頑强이오 市況은硬化되어 市勢二十錢反撥인 角ヶ三等二十八圓七十錢四等 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四錢

群山堅調 歲末金融梗에두고 産地도 適價에는 賣氣潛在이나 期米高와 正租의强調로賣

永金商會
金銀賣買
京城府水下町三六番地(東大門)
電話光化門二六八九番
地方注文販賣應酬送料先金

市場六感

株 年內에場面남기지안헛는데 市勢는 依然 그날이그날▲東新과鐘新이 支杯가되어잇스니 버티지만 支杯가萬若흔들닌다면 總崩難免이란 觀測도不無▲最後五分間的으로 爆發을依然期待하나 정말뒤어볼더이냐 그대로 平穩越年?▲?字만착 구쓰게되니 쓰는사람도 어려웁거니와 보는사람도 지리한노릇▲新春에 설령뛴다치드래도 年內는靜觀으로 그냥休養이 愚直한듯하나 意外失敗는 업슬上策?▲僥倖을바라는投機界에서는 不當한말이지만은…

米 今朝에至하야는 百萬石買上云云으로 阪地二十餘丁의反撥을 비롯하야 各地共히 一齊小高 ▲그原因은 前日에 百七十萬石을 拂下하엿든만큼 그代身에 百七十萬石을 買上하여야할境遇임으로 爲先百萬石을 買上하기로되엿다고 云云▲다시말하면 百七十萬石을賣替함이라고할수잇스나 아무리 買替라할지라도 한번買上을保留하기로 發表한 政府가 言明한지三、四日이 지나지못해서 買上을 發表할理가 萬無▲何如間 事實이든 아니든 市勢는一段反撥을 示하엿스니此亦 市勢▲米價는産地農家의賣惜으로 依然高價를 維持할뿐아니라 憑藉할 條件만 잇스면곳 反撥할形勢▲果然今回買上說이 政府의 正式發表가 아님으로 確信할수는 업스나 納金히 買上을 아니한다고 安心할수도 업는일인걸▲市勢가 買上說을 動機로하야 昂騰한後 更히低落하지못함을 보아서는 어떠한 條件잇는것도 갓다 果如何?

堂島前場賣買

▲賣方=朝鮮乘換中東側來客側乘換山種、西側株式側中國側
▲買方=桑名煎上朝鮮側別派地場乘換地場潮數

朝取期米取組內容

	中限 賣方	中限 買方	先限 賣方	先限 買方
名古	四六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	三三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	一八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	五〇〇〇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强調

産地는 消費高로 賣惜하고 實需의 買物이 散見되어 市勢十錢高唱인 乘ヶ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五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木浦小堅

期米의 高影로 日本內地側의 買往文과 年末의 準備資等으로 十錢硬化하야 角ヶ三等二十八圓三十錢 四等二十八圓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金融 (二十日)

◆海外經濟
[illegible]	[illegible]

◆日本銀行勢
[illegible]	[illegible]

◆朝鮮銀行勢
[illegible]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illegible]

米穀 (二十日)

◆京城正米
[illegible]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正米檢準價
[illegible]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illegible]

商品 (二十日)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illegible]

◆大阪豆粕期受
[illegible]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illegible]

◆滿洲豆粕冲價
[illegible]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illegible]

劉康益夏商店
仁川期米
仁川·海岸町

劉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株式
京城·黃金町

株式 (二十日)

◆東京現株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朝取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取組
[illegible]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illegible]

期米 (二十日)

◆朝取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租市勢 (單位錢)
[illegible]	[illegible]

商品 (二十日)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illegible]